

# 리아호나



그분을 어떻게  
경배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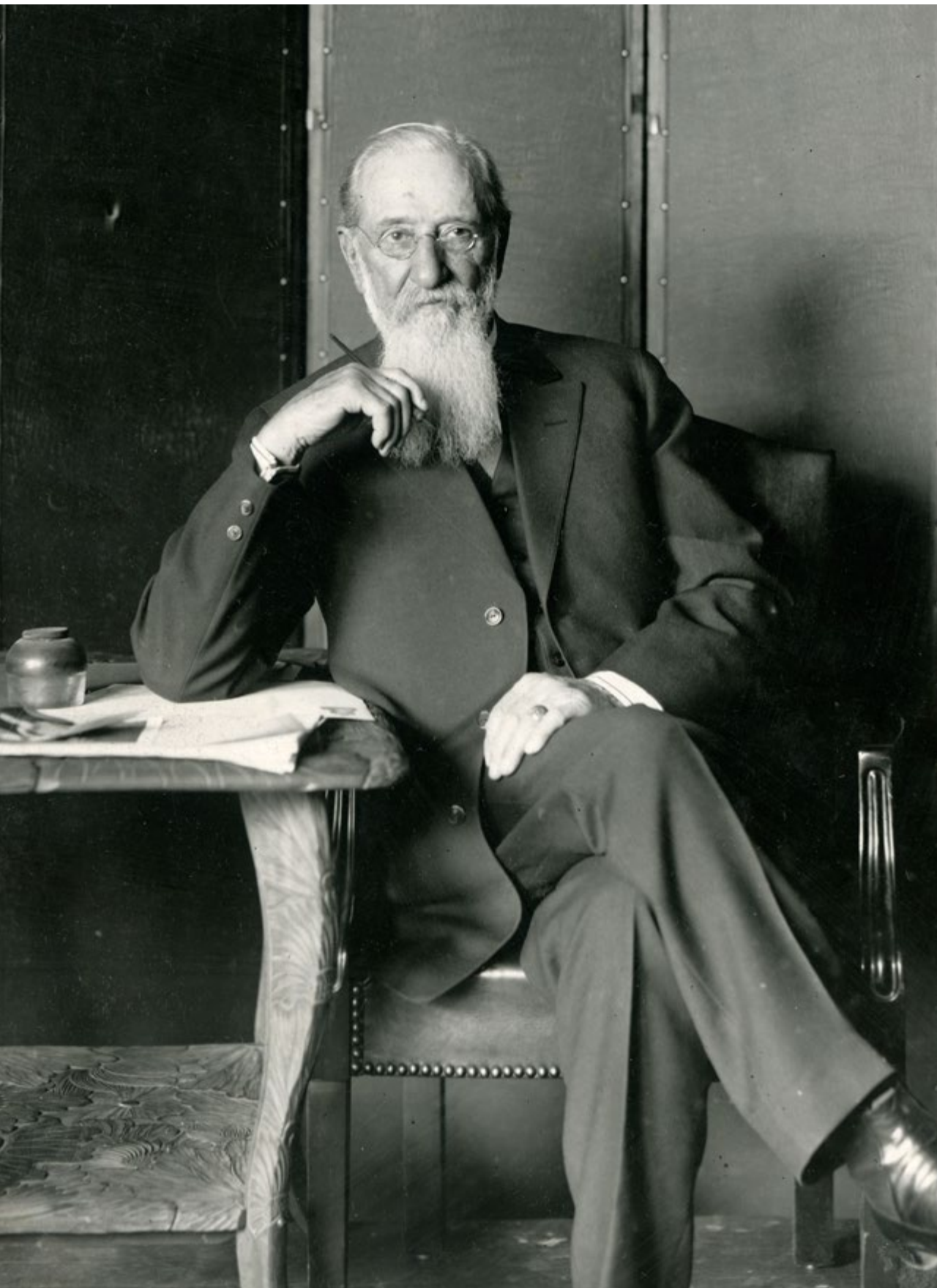
4, 10, 16쪽

무명의 소년,  
뛰어난 선견자, 20쪽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기  
힘드십니까? 28쪽

우리를 보호해 주는 7가지  
복음 원리, 34쪽





1901년부터  
1918년까지 교회  
회장으로 봉사했던 조셉  
에프 스미스의 사진.  
이 사진은 그가 8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 일  
년 전에 찍은 사진이다.  
그의 부친인 하이럼  
스미스는 1844년에  
조셉 스미스와 함께  
순교했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1866년  
27세의 나이에 브리검  
영 회장에 의해 사도로  
성임되었으며, 네 명의  
교회 회장의 보좌로  
봉사했다. 총관리  
역원으로 52년간  
봉사하며 그가 전한  
수많은 가르침들은 복음  
교리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또한  
그는 현재 교리와 성약  
138편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를 받기도 하였다.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성탄절에 찾는 그리스도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기꺼이 서로의 짐을 지고



표지  
성탄도, 브루스 힉스 스미스

특집 기사

- 10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이번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 16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둘러싼 열네 가지 사건들  
제시카 그리피스  
구주의 탄생 전후에 일어났던 경전 상의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자.
- 20 조셉 스미스, 연약함으로부터 강하게 되다  
마커스 비 내쉬 장로  
선지자 조셉에게 그러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향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 28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다 2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 찾기  
벤티 밴덴버그  
이곳이 여러분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느낀 적이 있는가? 여기 해결책을 찾게 해 줄 몇 가지 방법이 있다.

- 34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파란처와 보호처  
제틀리우 월터 야거 에 실바  
우리가 삶에서 보호를 약속받는 일곱 가지 방법을 교리와 성약에서 찾아보자.

교회 본부 기사

- 8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더 나은 가족 토론을 위하여  
더그 하트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44 신앙의 초상  
조세핀 시어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용감하게 그리스도의 대업을 행하십시오  
조셉 스미스 회장





48


- 46 몽골리아 갓 벨런트!  
포 니안 (펠리페) 초우, 페트라 초우, 오드게렐 오치르자브  
청년 성인 합창단이 노래로 몽골 전국을 사로잡고 복음을 나눈 이야기
- 48 구주께 드리는 나의 선물  
셰르스톤 픽스톤  
나는 나 자신에 관한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 생각해야 했다.

- 50 다시 찾은 신앙  
데이비드 덕슨  
테 오라노아는 간증은 식었지만, 과거에 했던 감미로운 경험들은 여전히 기억했다.
- 52 성탄절 캐럴의 마법  
노래를 통해 얻은 놀라운 축복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
- 54 성탄절이 선교 사업을 하기 좋은 때인 여덟 가지 이유  
살럿 라카발  
선교사가 되는 일이 이렇게 쉬울 수도 있다.
- 58 포스터: 그분을 위한 자리
- 59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성탄절의 진정한 영을 느끼는 법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60 질의응답  
"중요한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응답을 받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은 건지 알 수 있을까요?"
- 62 우리들 공간



76

- 64 성탄절 전야에 오신 손님  
홀리 케이 워딩턴  
아이고 이런! 클라라가 일 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날의 저녁 시간을 망치게 생겼어요.
- 66 용감하게 복음을 나누세요!  
폴 비 파이퍼 장로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래요?
- 67 교회사의 인물들: 오늘날의 교회
- 68 빨간 딱지  
다시 젠슨 모리스  
마테오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처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70 사도들의 답변: 회개하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데일 지 렌런드 장로
- 72 예수님의 가르침  
여기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성탄절날까지 카운트다운을 해 보세요!
- 74 음악: 그분을 위한 자리  
젠 핀보로우, 마이클 에프 무디
- 75 우리들 이야기
- 76 예수님 이야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킴 웹 리드
- 79 색칠하기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 보세요. 힌트: 성신은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도록 어떻게 도와주나요?



54



2017년 12월호, 제54권, 제12호

리아호나 14452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편집장: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후흐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쿤렌트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레스번드, 캐리 이스티븐슨, 데일 지 랜렌드

편집자: 후고 이 마르티네즈

부편집자: 켈들 케이 베네트, 캐럴 에프 맥콩키

고문: 브라이언 케이 에슈턴, 보니 에이치 코든, 에드워드 듀브, 사론 윙뱅크, 더글러스 디 홀츠

관리 책임자: 리차드 아이 하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크레밀다 애머럴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머리사 드니스,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로리 풀러, 게릿 에이치 가르프, 라린 포터 건트, 존 라이언 켄슨, 샬러 라카빌,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셸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퍼키, 켄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니, 민디 앤 셸루, 머리사 윌슨

편집 인턴: 페이스 에이 블랙하스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테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시 캄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데이비드 그린, 폴린 핑클리, 에릭 피 존슨, 수진 로프그렌, 스킵 엠 무이, 애일리 치에코 레밍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큰호스트

디자인 인턴: 캐티 브리다

지역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슨

제작팀: 이라 글렌 에더어, 콘니 바솔프 브릿지, 토머스 지 크로닌, 줄리 버렛,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날슨, 테레 리차드슨

사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브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케이 벨링가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21호, 제54권, 제1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7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이호선

편집인: 안덕현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화술정보(주) 채중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L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리아호나 "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될,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아나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바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아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7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OCT: December 2017 Vol. 41 No. 12.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 전 세계 예술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시편 77:11~12)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역사 박물관이 후원하는 제11회 국제 미술 작품 공모전에서 새로운 작품을 모집합니다.

- 주제: “민음의 읊조림”(시편 77: 11~12 참조) 매체, 스타일, 문화적 접근법 제한 없음.
- 공모 기간: 2018년 2월 1일~6월 1일.
- 참가 연령: 만 18세 이상.
- 수상작: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8년 10월에 발표. 선정된 작품은 교회 역사 박물관에 전시되며 온라인에 게시됨.

자세한 규칙, 자격 요건 및 온라인 등록은 [lds.org/artcompetition](http://lds.org/artcompetition) 참조.

##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르침, 8	54, 75	십일조, 34
가족, 10, 52, 54	선교 사업, 34, 46, 48, 54,	양육, 8
결혼, 34	64, 66	예수 그리스도, 4, 10, 16,
겸손, 20	선물, 41, 43, 48, 59	42, 43, 48, 58, 59, 72, 76,
경전 공부, 10, 72	선지자, 20, 34, 67	79, 80
교리와 성약, 34	성신, 34, 40, 60, 68	우정, 62, 68
교회 참석, 28	성약, 7, 34, 44	음악, 10, 43, 46, 52, 74
기도, 20, 60	성전, 34, 44, 67, 75	자애, 7
모범, 8, 62	성탄절, 4, 10, 16, 40, 41, 42,	조셉 스미스, 20
물문경, 20, 50, 63, 66, 67	43, 48, 52, 54, 58, 59, 64,	지혜의 말씀, 34
보고 책임, 63, 68	72, 74, 76, 79	진리, 44
봉사, 7, 10, 41, 42, 43, 52,	순종, 34	하나님 아버지, 20, 28, 75
	신앙, 4, 20, 28, 44, 50, 80	회개, 28, 68, 70, 71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성탄절에 찾는 그리스도

**여**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자 하는 모든 분께 다음 세 마디로 그 시작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분을 따르고자 합니다. 더욱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 년 내내 매일같이 그분을 찾습니다. 그러나 특히 사랑하는 구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분께 마음을 기울입니다.

성탄절을 기념하고자 준비하는 의미에서, 2천 년 전 사람들은 구주의 탄생을 맞기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 목자들

목자들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이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켰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sup>1</sup> 그들은 생계를 꾸리느라 하루가 바쁜 많은 선한 이들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던 때도 있었지만,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표적이 보이자 마음을 바꾼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들은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을 듣기 무섭게 그분을 뵈기 바라며 즉시 베들레헴으로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sup>2</sup>

## 동방박사들

박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야의 출현에 대해 공부해 온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움을 통해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표적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고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sup>3</sup>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공부한 지식은 학문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구주의 탄생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찾고자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배움과 학문을 통해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진리에 몸 바친 끝에 그리스도를 찾았으며, 그분을 만왕의 왕, 곧 인류의 구주로서 경배했습니다.<sup>4</sup>

##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과 안나는 영을 통해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을 뜻합니다. 믿음이 깊었던 이 놀라운 영혼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보고자 열망했습니다.

그들은 성실하고 겸손하고 충실하게 생활하며 구주가 오실 날을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언젠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될 아기 예수를 그들에게 보였고, 마침내 그들은 충실함을 보상받았습니다.<sup>5</sup>



###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백성들

물론경에는 신대륙에서 믿음을 가졌던 백성들이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었던 그들이 조롱당하고 박해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미신을 믿는다며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은 목소리를 높여 믿는 백성들을 조롱하며 그 땅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제3니파이 1:7) 그들은 구주께서 태어나리라는 것을 믿는 이들을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분노가 격해진 나머지 구주를 믿는 이들을 완전히 멸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물론경에는 이 일이 해결되는 극적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sup>6</sup>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우** 흐트도르프 회장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잘 찾을 수 있는가? 가르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도록 독려한다. 매일 가족과 경전을 공부하는 시간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찾는 방법을 나누기 시작하도록 권고하면 좋을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Mormon.org의 성탄절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므로써 그분을 찾는 이 특별한 기회에 동참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당시의 믿는 백성들은 타인의 조롱과 야유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교양 없고 세련되지 못하며 잘 속는 사람으로 왜곡하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진실로 믿는 이들은 다른 이의 멸시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는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일 년 중 언제라도 그렇겠지만, 특히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가?”

다윗 왕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sup>7</sup>

아마도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묘사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sup>8</sup>

이 성탄 절기에, 그리고 일 년 내내, 우리 마음과 영혼을 다해 평강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사랑하는 구주를 찾읍시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주

1. 누가복음 2:8.
2. 누가복음 2:15 참조.
3. 마태복음 2:1~2 참조.
4. 마태복음 2:11 참조.
5. 누가복음 2:22~38 참조.
6. 계3니파이 1장 참조.
7. 시편 63:1.
8. 사도행전 13:22 참조.

## 어린이

### 예수님을 기다리며

**만**은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능**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 배우고 그분을 따름으로써 준비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별 속에 생각을 적어 보세요.



# 기꺼이 서로의 짐을 지고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 알고자 영감을 구한다.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딸들이 영생의 축복을 얻도록 준비하는 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관심과 격려, 도움과 위안, 친절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복돋워 줘야 한다는 명을 받고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sup>1</sup>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 교회의 회원이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크나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약을 맺고, 약속을 받았으며, 그 약속으로 여러분의 본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여 위안을 주시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신의 은사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해 주는 일을 도울 힘을 받았습시다.”<sup>2</sup>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진 비 빙엄 자매는 말했다. “구주께서 연민과 소망,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시듯, 우리도 복음의



신앙  
가족  
구제

빛으로 타인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생에서 타인에 대해 너그럽게 생각하고 말한 만큼 우리에게도 그런 인정이 베풀어진 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

우리 스스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의 서로 다른 발전 정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sup>3</sup>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눠 지고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치유의 권능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속죄를 행하심으로써 우리가 다 해야 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다는

점에 비추어, 그분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낮게 하실 방법과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며, 그분 자신이 곧 길이기 ... 에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sup>4</sup>

### 보충 성구

마태복음 25:40; 갈라디아서 6:2; 모사 이야기서 2:17; 18:8~9  
reliefsociety.lds.org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2월호, 4쪽.
2. 헨리 비 아이어링, “보혜사”,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8쪽.
3. 진 비 빙엄, “우리 집에 복음의 빛을 비출래요”,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6, 8쪽.
4. 제프리 알 홀런드, “고쳐야 하는 부서진 것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71쪽.



### 생각해 볼 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 지고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키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치유하시도록 길을 열어 드리는 것이 되는가?



# 가족 토론을

## 더 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을 공부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더그 하트

**일** 마 전, 아내와 나는 십 대인 우리 자녀들 문제로 속을 앓고 있었다. 가족끼리 경전을 공부하거나 가정의 밤을 할 때, 그리고 즉석에서 일대일로 복음 이야기를 할 때 보이는 아이들의 태도 때문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자리를 지키고, 간혹 눈을 마주치며, 단답형으로 답하는 등 배움에 필요한 최소치는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지는 않았다.

아이들이 강한 간증을 얻고, 깊이 있는 경험을 하며, 성신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지 않고 신앙을 행사하여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바라신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2016], 30쪽)

어느 날 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느낌을 이야기했다. 영이 이끄는 가운데 토론하며 아이들에게 권고해 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토론을 시작하기 무섭게 우리의 이야기는 일방적인 잔소리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아들들은 귀로는 우리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리와 가슴에는 아무 감흥이 없는 것 같았다.

이 일로 애를 먹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배우게끔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는 한편, 우리의 말과 잔소리에 못 이겨서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북돋워 주고자 했다. 우리는 그 문제로 고민한 끝에 경전과 후기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침 및 배움과 관련된 다른 교회

자료를 찾아가며 알게 된 점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 보았다. 계획은 다음과 같다.

**자녀들이 가족 토론에서 성신을 구하고 느끼도록 이끈다**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른다. 사랑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자녀들은 성신의 영향력을 느끼도록 준비될 것이다. 또한, 사랑은 적극적이며 영적인 배움의 자세를 지니겠다는 소망과 의지를 키워 줄 것이다. 자녀들의 관점과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것들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들을 존중한다면, 그들은 더 안심하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느낌을 이야기할 것이다.

영으로 가르친다. 자녀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질문하며, 권유할 것인지를 영으로 분별하게 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은 배움 속에서

# 위하여

성신의 영향력을 찾게끔 인도될 것이다.

모든 토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진행한다. 복음에 관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경전 구절과 후기 선지자의 말씀을 나눌 때 더 깊고 강력하게 영과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교리와 성약 84:45 참조)

복음을 주제로 토론할 때는 항상 구주를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구주 및 “기독교 교리의 가장 근원”인(보이드 케이 패커, “중재자”,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56쪽) 속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녀들이 이해할 때, 우리의 토론에 더욱 무게와 힘이 실릴 것이다.

영감을 주는 질문을 한다. 자녀들은 효과적인 질문을 받을 때 진리로 인도되며, 영의 도움을 받아 경전 및 선지자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것이다. 같은 내용을 배우더라도 부모의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직접 배우는 것들은 자녀들에게 더 의미 있을 것이다.

말로 전하도록 가족들을 독려한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들이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그들 나름의 말로 표현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를 알고자 성신을 불러들이게 된다. 그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께서 그들이 배우고 느끼기 원하시는 것을 더 분명히 알고 이해해 나갈 것이다.

인내한다! 자녀들이 머리와 가슴으로 진리와 이해를 찾을 때, 성신이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개인적인 의견과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며 토론이 무르익기 전에 개입함으로써 자녀들의 탐구 과정을 짧게 마무리해 버리고 싶어지는 유혹을 이겨 내야 한다.

모범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권고하는 대로 우리도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토론 속에서 영의 지지와 인도를 얻을 자격을 갖추 수 있을 것이다.

계획을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성신의 영향력을 가족 토론에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바로 며칠 전 밤에 가족끼리 물문경을 읽고 있는데, 열 살 난 딸이 그중 한 구절을 보고는 기특하게도 진지한 얼굴을 하고 물었다. “성신으로 배운다는 게 뭐예요?” 나는 빙그레 웃었다. 진전이 있었던 것이다! ■

글쓴이는 현재 브라질库里치바 선교부의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새로운 안내서인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에는 십 대 이하 자녀들을 가르치는 법에 관한 제안이 수록되어 있다. [teaching.lds.org](http://teaching.lds.org)를 참조한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이 요청하시는 일을 하고 주위 사람을 고양하는 가운데 그분의  
편에서 그분과 함께 일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14)

구주께서 탄생하시기 125년 전, 베냐민 왕은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아버지, 태초로부터 만물의 창조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칭하여지리라.”(모사이야서 3:8)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기 바로 전날, 니파이의 아들 니파이는 이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내가 세상에 [오리라.]”(제3니파이 1:13)

다음 날, 아주 먼 곳에서 아기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분명 모친인 마리아는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육신을 입고 갓 태어난 아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목자들은 베들레헴을 둘러싼 유대의 언덕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누가복음 2:8 참조) 이 목자들은 아기 그리스도를 증거할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엘마서 13:26 참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누가복음 2:9~11, 13~14)

하늘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별들로 빛나고, 이 귀하디귀한 사건을 축하하는 합창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는 유대의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목자들은 걸음을 서둘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러 갔으며,(누가복음 2:16 참조) 얼마 후에는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누가복음 2:17)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곧 문자 그대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지상의 한 장소에 오셨다는 목자들의 간증에 우리도 간증을 더합니다.

목자들은 만왕의 왕께 경배하고자 경건한 마음으로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이 절기에,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경배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물건을 사들여야 할까요? 요란하게 집안을 꾸미고 선물을 포장해야 할까요? 과연 이런 것들로 구주께 감사를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목적없이 방황하는 사람을 도우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누가복음 18:22)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의 믿는 이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바다의 섬부터 광활한 러시아에 이르는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구주의 성스러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열정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 성탄절에 담긴 메시지

시온에 집합한 초기 성도 중에는 미국 유타 주 스페니쉬포크에 정착한 해나 라스트 코나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복된 교회의 초창기에는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지라, 귀한 오렌지나 나무를 깎아서 만든 장난감, 그것도 아니면 형질 인형만으로 성탄절을 축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해나는 1856년 12월 25일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성탄 전야가 되자, 귀여운 내 아이들은 어린애다운 믿음으로 양말을 걸고서 과연 이튿날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이들한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양말 속에 꼭 선물이 들어 있을 거라며 아이들을 안심시켰고, 다들 내일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잠이 들었다.

단맛을 낼 재료가 없으니 정말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아이들을 실망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집에 있는 과즙 몇 가지가 생각났다. 일단 그것들을 끓여서 수분을 날리고 몇 시간을 줄여서 달콤한 시럽을 만들었다. 그런 뒤 이 시럽에 약간의 향료를 곁들여 생강 쿠키 반죽을 만들고, 생각나는 대로 온갖 모양을 잘라내서 냄비에 구운 뒤 (우리 집에는 오븐이 없었다) 아이들 양말에 넣어 주었다. 아이들은 진귀한 과자라도 받은 듯이 기뻐했다.”<sup>1</sup>

이야기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어머니는 오븐도 없이 힘겹게 일하며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저 자녀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강화하며, 가정에 “모든 것 잘 되[는 기쁜 날]!”을 선사하고자 여념이 없었습니다.<sup>2</sup>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담긴 메시지가 아닐까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는 참으로 무한하지만, 그것은 또한 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필요합니다. 친절한 말이 필요합니다. 선물이 필요합니다.”<sup>3</sup>

어떤 현세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요청하시는 일을 하고 주위 사람을 고양하는 가운데 그분의 편에서 그분과 함께 일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개종자 존 맨시스 맥팔레인은 홀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교회의 회원이 된 뒤, 다 같이 1852년에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그는 18세였습니다. 맥팔레인 형제는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토지 측량인과 건축업자를 거쳐 지방 판사까지 지냈으나, 정작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음악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유타 주 시더시티에서 자신의 첫 번째 합창단을 조직하여 남부 유타 인근에서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가 세인트조지에서 공연을 마친 뒤, 사도이자 거주지의 지도자였던 에라스투스 스노우(1818~1888) 장로는 그에게 가족을 데리고 세인트조지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음악을 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상황이 좋지 못했던 1869년, 스노우 장로는 맥팔레인 형제에게 사람들의 영을 고양할 성탄절 프로그램으로 무대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맥팔레인 형제는 이 행사에 새롭고 매력적인 작품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곡을 만들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써 보아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감을 얻고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맥팔레인 형제가 아내를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노랫말이 떠올랐소. 음악도 말이오!” 그는 거실에 있는 작은 오르간의 건반 앞으로 달려가 곡을 연주하더니 악보를 적었습니다. 아내가 비취 주는 등잔에서는 기름 젖은 심지 끝이 깜박이며 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적은 곡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 멀리 유대의 넓은 들에  
목자는 천사의 음성 들었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땅에서는 기쁨과  
평화가 있으리라<sup>4</sup>

맥팔레인 형제는 유대에 가 본 적이 없었기에 유대의 들은 바위 언덕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영감 어린 메시지가 되어,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탄생하심으로써 세상을 영원히 변화시키게 될 것임을 증거했습니다.<sup>5</sup>

존 멘시스 맥팔레인은 음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며, 해나 라스트 코나비는 자녀에게 봉사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단순하고 비이기적인 행위로써 주님께 봉사하며 그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 와드, 직장을 비롯해 책임이 있는 모든 곳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의 하나는 매년 교회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벌이는 성탄절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성도들은 물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주께 집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올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한편, 사람들이 성탄 절기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분을 닮아 가도록





제 누이는 멋진 퀼트 작품을 만들어 “모든 이름 위에 존재하는 이름”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작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26가지 명칭이 나타나 있습니다.

독려하고자 또 다른 범세계적 노력을 시작합니다.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작년 캠페인의 주제와 같이 올해 주제도 “세상을 비추라”입니다.(Mormon.org 참조) 이 주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캠페인에는 성탄절이 될 때까지 매일 한 장씩 넘길 수 있는 달력과 함께 사람들이 봉사하며 성탄절의 빛을 나눌 방법을 제시하는 경전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빛을 지니고 지상에 왔습니다.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이 보여 주신 삶과 가르침대로 생활할 때, 그 빛은 우리 안에서 타올라 다른 이들의 길을 비춰 줄 것입니다.”<sup>6</sup>

우리는 구주께서 하신 일을 함으로써 그분을 알아 갑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봉사할 때, 타인은 물론 우리 자신도 구주와 가까워집니다.

### “모든 이름 위에 존재하는 이름”

성탄 절기가 되면, 저는 특히 제 어린 외손자인 팩스틴이 그리웁습니다. 희귀한 유전질환을 안고 태어난 팩스틴은 건강 문제로 셀 수 없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팩스틴이 저희의 삶을 축복했던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 가족에게 특별하고 다정다감한 교훈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누이인 낸시 윈들러 자매는 팩스틴을 기리는 멋진 쿼트 작품을 만들어 “모든 이름 위에 존재하는 이름”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작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26가지 명칭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26가지 명칭은 A부터 Z까지의 글자로 시작되는 말들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구주의 고통과 희생, 부활 덕분에 저희 가족은 장차 영광스럽게 팩스틴과 다시 함께하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작품을 계기로 경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명칭을 연구하는 일은 제 개인 경전 공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구주를 가리키는 수백 개의 명칭을 찾아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언급되었듯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제가 맡은 책임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십이 순회 평의원은 부름을 받아 십이사도 곧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07:23; 강조체 추가)

최근에 저는 솔트레이크시티 아동 병원에서 열리는 성찬식에서 말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가리키는 희망이 담긴 명칭들을 주제로 말씀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요한계시록 22:16), “좋은 일의 대제사장”(히브리서 9:11), “그의 날개를 고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실 “기적의 하나님”(니파이후서 25:13; 27:23), “평강의 왕”(이사야 9:6; 니파이후서 19:6),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요한복음 11:25)이신 구주에 관해 간증했습니다.

저는 성탄 절기 동안 템플 스퀘어의 성탄절 불빛을 따라 제 사무실을 오가는 길에 구주의 여러 다른 명칭을 암송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암송은 A로 시작되는 “Alpha and Omega[알파와 오메가]”(요한계시록 1:8)부터 B-“the babe[베들레헴의 아기]”(누가복음 2:12, 16), C-“Counsellor[기모자]”(이사야 9:6; 니파이후서 19:6 참조), D-“the Deliverer[구원자]”(로마서 11:26), E-“exalted one[택함 받은 자]”(시편 89:19), F-“the founder of peace[화평을 세우신 이]”(모사야서 15:18) 등등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번 성탄 절기가 끝날 때까지 구주를 가리키는 명칭을 더 외우고, 그분의 이름을 받들 기회가 생기기를 고대합니다. 이번 성탄 절기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애쓰시는 동안 구주를 그 중심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저는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이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은 모든 세대에 걸쳐 그분 자녀들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저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곧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가 세상의 구주요 구속주임을 압니다.

제 귓전에 울리는 찬미의 음성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과 평화가 있으리라.”<sup>7</sup> ■

2016년 12월 13일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BYU Management Society-솔트레이크 지부 모임 말씀에서 발췌함.

### 주

1. Hannah Cornaby, *Autobiography and Poems* (1881), 45~46.
2.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16장.
3. 토마스 에스 몬슨,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야호나*, 2008년 8월호, 5쪽.
4. “저 멀리 유대의 넓은 들에”, 찬송가, 128장.
5. Karen Lynn Davidson, *Our Latter-day Hymns: The Stories and the Messages* (1988), 223~224 참조.
6. 토마스 에스 몬슨, “본이 되고 빛이 되십시오”, *리야호나*, 2015년 11월호, 86쪽.
7. 찬송가, 128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둘러싼

# 열네 가지 사건들

제시카 그리피스

**우**리는 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찬송가를 부르고, 가족의 전통을 즐기며,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써 그분을 기억한다. 그런데 경전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사건이 일어난 장소

사건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되다

창세기 49:10;  
이사야 7:14;  
9:1~7; 미가 5:2;  
모사이야서 3:8;  
엘마서 7:10;  
힐라맨서 14:2~5



고대 예루살렘과 미대륙

천사 가브리엘이 침례 요한의 부모를 방문하다

마태복음 17:12~13;  
누가복음 1:5~25  
(특히 17절);  
교리와 성약 27:7;  
경전 안내서,  
“일라이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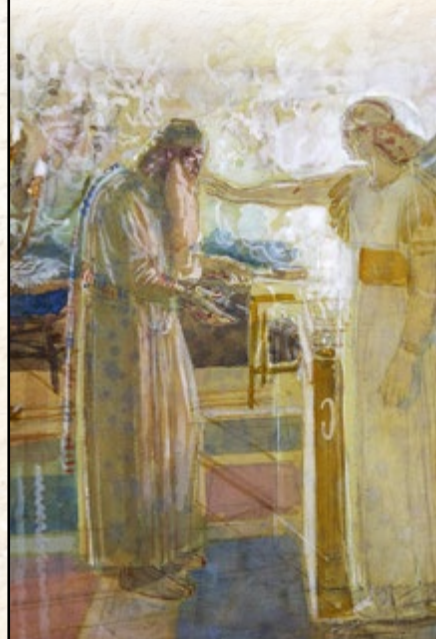


유대

선지자들은 구주께서 태어나시기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계시를 받았다. 구약전서의 선지자들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날 왕인 메시아를 언급했다. 유대인의 해석에 따르면, 이 메시아는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을 정치적인 억압에서 건져 내고 세상을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고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영적인 억압에서 건져 낼 왕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세적인 구원과 세상의 왕국이 아닌 영원한 구원과 그분 아버지의 왕국을 마련해 주셨다.

침례 요한은 일라이어스, 즉 그리스도의 예비자였다. 천사 가브리엘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에게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할 터인데 이 아이를 요한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일렀다. 사가랴는 미심쩍어했고, 그 결과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었다.



## 성탄절의 진정한 본질

“이 절기에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은 그분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화, 우리들 각자가 느낄

수 있는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그토록 자신을 크게 희생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에 대한 벽찬 감사의 느낌, 이러한 것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성탄절에 실제로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 *리아호나*, 2000년 12월호, 6쪽.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다

마태복음 1:18;  
누가복음 1:26~38



나사렛과 갈릴리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다

누가복음 1:39~56



유대

침례 요한이  
태어나다

누가복음 1:57~80



유대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다

마태복음 1:18~23



나사렛



6개월이 지난 후 가브리엘이  
다음으로 방문한 사람은  
엘리사벳의 사촌인  
마리아였다. 가브리엘은  
처녀인 마리아가 성신의  
권능으로 아기를 잉태할  
것이며,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리라고 말해  
주었다. 마리아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될 부름을  
받아들였다.  
또한, 천사는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고 일렀다.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은 뒤 나사렛을 떠나  
유대에 있는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석  
달을 묵었다. 마리아가  
머무는 동안, 엘리사벳은  
성신을 통하여 마리아의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간증을 얻었다. 마리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전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가 그의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불릴 것이라 생각했다.  
엘리사벳은 그 이름을  
마다하며 친구와 이웃들에게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알렸다. 친구와 이웃들이 이  
문제를 사가랴에게 묻자,  
사가랴도 엘리사벳의 생각을  
따랐다.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대로 아들의 이름을 바꾸자  
사가랴는 혀가 풀렸으며,  
다시 듣고 말하게 되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잉태하여 나사렛으로 돌아온  
마리아를 보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였다. 즉, 그는 조용히 파혼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는 성신으로  
잉태했으며 아기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리라고 증거했다.  
요셉은 마리아와 헤어지지 않고  
결혼하기로 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다. 해리 앤드슨: 천사 가브리엘의 생화: 마이클 림: 여파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쥘리 레인: 방문 그릴의 일부: 켈빈트 하르만스존(1609~1669)/DETROIT INSTITUTE OF ART, USA/BERDOBAN IMAGES: 대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뵈 못하게 하다, 배경: 테두리, 낙타, 파는 남자: 게티 이미지: 사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짓다, FOT 제공: 조셉에게 일러지다, 조셉 브레이크



천하가  
호적하다

누가복음 2:1~4;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1916),  
102~103쪽



로마 제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다

누가복음 2:6~7



나사렛, 베들레헴, 유대

예언된 표적이  
미대륙에 나타난다

힐라맨서 14:1~5;  
제3니파이 1:15~21



미대륙

목자들이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다

누가복음 2:8~17



베들레헴 근처

로마인들은  
세금을 걷고  
인구를 등록시킬  
목적으로 호적 등록제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보통  
로마에서는 호적을 등록할  
때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삼았던 반면, 유대에서는  
조상들의 본적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요셉의  
조상들의 본적지였던  
베들레헴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여관에도  
묵을 곳이 없었다.



“떡의 집”이란 뜻의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탄생할 곳으로 예언된  
장소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령에  
응하고자 베들레헴으로  
갔다.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마리아는  
가축을 먹이는 여물통인  
구유를 요람 삼아 아기를  
눅혔다. 동물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언급은 없다.

예언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던 날  
미대륙에서는 한 낮과 한 밤,  
또 한 낮이 있되 날이 온통  
빛으로 가득했고, 하늘에는  
새 별이 돋았다.



목자들은 연중 이 시기가 되면  
밤낮으로 양 떼를 바깥에  
풀어 두었다. 그들이 바깥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구주가  
태어나신 일을 알렸다. 한  
천사가 말을 마치자, 이어서  
한 무리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했다. 목자들은  
이 말을 듣기 무섭게 예수님을  
뵈고자 급히 베들레헴으로  
길을 나섰다. 예수님을 본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떠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증거했다.





**예수께서 할례와 명명을 거쳐 성전에 가시다**

누가복음 2:21~38;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97~100쪽



베들레헴

**동방박사가 헤롯왕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묻다**

마태복음 2:1~10



예루살렘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찾아 예물을 바치다**

마태복음 2:9~12; Bible Dictionary, "Magi"



베들레헴

**요셉이 애굽으로 피하도록 경고받다**

마태복음 2:13~16, 19~23



베들레헴, 애굽, 나사렛

그리스도는 태어난 지 여드레가 지난 후 유대의 관습에 따라 할례받고 명명되었다. 그분은 히브리어로 "구주"를 뜻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얻었다. 유대의 관습에서는 여성은 출산 후 40일이 지날 때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마리아와 요셉은 40일이 지난 후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다. 그들은 거기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약속받았던 시므온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알아본 시므온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이루실 사명을 예언했다. 여성 선지자인 안나도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사명을 증거했다.

구체적인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들은 하늘에 그리스도가 나셨음을 알리는 새 별이 뜬 것을 보았다. 그리고 로마에서 임명한 유대 왕 헤롯에게 어디로 가야 아이를 찾을 수 있을지 물어보았다. 헤롯은 새로운 왕인 메시아가 자신의 왕국을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협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은 알리지 않은 채, 박사들에게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 장소를 고하라고 일렀다. 그는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계획했다.



마침내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찾아냈다. 마태복음에는 박사들이 집에 있는 "아기[young child]"를 찾았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정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로써 그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 적어도 일 년이 지난 후에 그곳에 이르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는 귀한 예물인 황금과 유향, 몰약을 바쳤다. 박사들은 꿈에서 이 일을 헤롯 왕에게 알리지 말도록 지시받는다.



박사들은 자신들이 헤롯에게 고하겠다고 했던 바를 전하지 않았다.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두 살 미만의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법령으로 이에 대응했다. 요셉은 시현으로 경고를 받고 마리아와 아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헤롯이 죽자, 천사가 요셉에게 시현으로 나타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시의 통치자가 헤롯의 아들임을 알게 된 요셉은 유대가 아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족을 데려갔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여러 해가 지나고, 그분은 침례를 받고, 기적을 행하시며, 위대하고 영원한 속죄를 완수하실 것이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조진 브리타기; 무사들에게 알려지다, 헬 파슨; 시므온과 그리스도 © LARS JUSTINEN/GOODSALT.COM; 제롬; 헤롯 왕 앞에서, 동방박사들 © THE CLASSIC BEBEE ART COLLECTION/GOODSALT.COM; 제롬; 구주 나사렛, 달; 구주 나사렛, 그림의 양부, 조진 브리타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존 허노든; 예수를 찾는 동방박사들, 로버트 더틀러; 엠브로스(1867~1931) 개인 소장품/©LOOK AND LEARN/BROGEMAN IMAGES







마커스 비 내쉬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조셉 스미스,

## 연약함으로부터 강하게 되다

[역자 주: 이 기사에는 조셉 스미스가 직접 기록한 글이 인용되었습니다. 그 인용문에는 영문상 철자법, 구두점, 대문자 사용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어 철자법은 1820년 후반이 지나서야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자의 편의와 가독성을 위해 인용된 글들의 번역에는 그런 오류들을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수** 천 년 전, 요셉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같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뛰어난 선견자 하나를 내가 네 허리의 열매로부터 일으키리니, ... 그에게 내가 권능을 주어 네 허리의 자손들에게 나의 말을 가져다 주게 하며, ... 또 연약함으로부터 그가 강하게 되리니.”(니파이후서 3:7, 11, 13)

“연약함으로부터 그가 강하게” 된다는 예언은 제게 흥미와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고자 연약한 자를 부르신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한 점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연약함이 주님의 힘을 구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행사하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늘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능의 주인이신 그분께 힘입어 강하게 될 것입니다.(마태복음 28:18; 모사이야서 4:9 참조)<sup>1</sup>

조셉 스미스는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열다섯 살에 접어든 조셉은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바랐고 어느 교회가 옳은지를 간절히 알고자 했습니다. 조셉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록 나의 감정이 깊고 종종 강렬하기까지 하였[으나,] 어리고 세상사에 미숙한 나로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어떤 확실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했다.”(조셉 스미스—역사 1:8 참조)

이렇게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깨달은 조셉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성스러운 숲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목적으로 주님께 여쭙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18 참조)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알려 주시면 그 교회에 가입할 생각이었습니다. 조셉의 겸손하고 진심 어린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들은 이로써 악의 권능에서 조셉을 건져 내시고 교회가 회복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14~19)

**조셉 스미스처럼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강하게 될  
것입니다.**



obliged to labour hard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세상의 연약한 것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교리와 성약 1:19; 35:13) 못마땅해하지 않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 주님은 조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땅의 연약한 것들을 통하여 나의 지혜를 보이려는 이 목적을 위하여 너를 일으켜 세웠음이니라.”(교리와 성약 124:1)

### 무명의 소년

조셉 스미스는 자신을 일컬어 “하루하루 일하여 부족한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 무명]의 소년”이라고 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23) 조셉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가정에 태어나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기록한 자신의 역사에는 그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나는 1805년 12월 23일, 미국 북부의 버몬트 주에 있는 샤론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나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고자 많은 공을 들이신 훌륭한 분들이셨다.[.] 아버지 조셉 스미스 일세는 내가 열 살 무렵에 뉴욕 주 온타리오 군의 팔마이리로 가셨는데, 궁핍한 처지에 아홉 남매를 둔 대가족을 돌보느라 고되게 일해야 하셨다. 또한 온 가족이 있는 힘을 다해 생계를 꾸려야 하니 우리는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나는 겨우 읽고 쓰는 법과 기초 계산법밖에 배우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sup>2</sup>

조셉은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끼며, “종이, 펜, 잉크, 그리고 비뚤어지고 조각났으며 흩어지고 불완전한 언어로 눈앞이 보이지 않게 된 비좁은 감옥”에 갇힌 듯한 마음으로 통탄하기도 했습니다.<sup>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부르시어 몰몬경을 번역하게 하셨고(588쪽 전체가 조셉이 번역했던 그대로 출판되었다), 조셉은 석 달이 안 되어 이 일을 완수했습니다.

누구라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조셉이 혼자 힘으로 이런 일을 해낸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조셉에 대해 일각에서 지어내고 날조한 말들이 오히려 실제 사실보다 훨씬 믿기 어렵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조셉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써 몰몬경을 번역한 선지자였습니다.

### 에머의 증언

말년에 에머 스미스는 남편이 금판을 번역하던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남편은] 조리 있고 유려한 편지는 쓸 수도 불러 줄 수도 없었다. 그러니 몰몬경 같은 책을 읽어 내린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나는 그 일에 깊이 관여했지만, 다른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내게도 그 일은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다.’”<sup>4</sup>

**왼쪽:** 조셉 스미스가 친필로 작성한 자신의 역사 도입부. **반대쪽:** 조셉 스미스의 일지 일부. 선을 그어 지운 부분을 잘 살펴본다.

New York and being in indig  
obliged to labour hard for the  
Family having nine child  
and the exertions of all that  
any assistance for the supp  
therefore we were deprived of

for the support of a lar...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조셉의 첫 번째 일지 첫 장에 적힌 1832년 11월 27일의 기록을 살펴보면 자못 흥미롭습니다.(오른쪽 참조) 이 부분이 기록된 것은 조셉이 몰몬경 번역을 마무리하고서 대략 삼 년 반이 지난 후였습니다. 조셉이 한 번 적은 뒤 그 위에 줄을 그어 지운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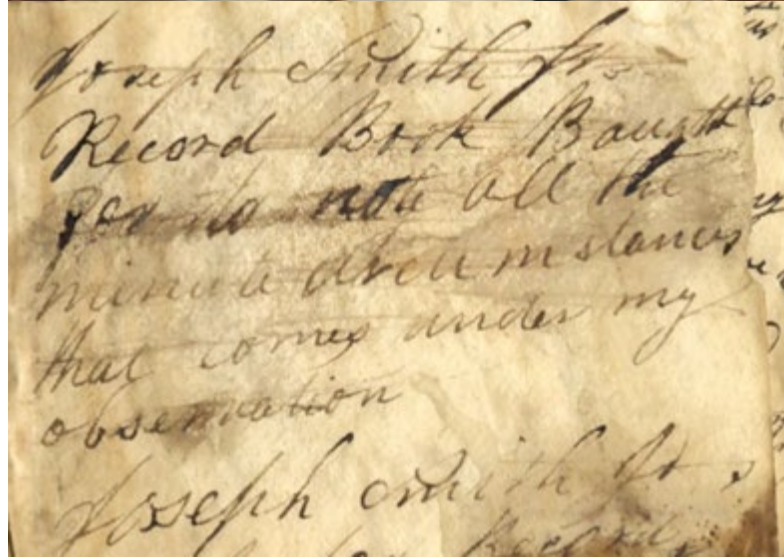
“조셉 스미스 이세의 기록책 - 내가 겪는 모든 자잘한 상황을 적으려고 구입함.[Joseph Smith Jrs—Record Book Bought for to note all the minute circumstances that comes under my observation.]”

저는 이 일지를 손에 들고 조셉이 줄을 그어 지운 문장을 읽으며, 미국 개척 시대의 소박한 집에 앉아 있는 조셉 스미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첫 문장을 적으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건 아니야. 다시 적어 보자.” 그래서 그는 적었던 문장을 지우고 다시 이렇게 적어 봅니다. “조셉 스미스 이세의 기록을 위한 책 - 내가 겪는 자잘한 일 ... 등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기록할 목적으로 1832년 11월 27일에 구입함.[Joseph Smith Jrs Book for Record Bought on the 27th of November 1832 for the purpose to keep a minute account of all things that come under my observation &c —]”

분명 자신이 적은 말이 부자연스럽고 불완전하여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았을 조셉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각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신의 종을 축복하소서.” 저는 이 문장 속에서, 자신이 부족하고 나약하다고 느끼며 무슨 일을 하든지 이끌어 주십사 신앙으로 하나님을 불렀을 조셉 스미스가 느껴집니다.

이제 이 일지의 도입부를 1829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기록된 몰몬경 원본 원고와(다음 쪽 참조) 비교해 보십시오.

구두점이 없고 삭제 표시도 없이 물 흐르는 듯 거침없는 문장에 주목하십시오. 조셉은 작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그를 위해 준비하신 도구를 들여다보며 한 단어씩 구술했습니다. 주로 우림과 돌뭍을 썼으며 간간히 선지자의 돌을 쓰기도 했는데, 거기 나타난 글자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 바깥에서 스며드는 빛을 차단하려고 모자를 사용했습니다.(니파이후서 27:6, 19~22; 모사이야서 28:13 참조) 보시다시피, 몰몬경의 번역과 일지의 도입부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 조셉 스미스가 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인 조셉 스미스가 쓴 것이었습니다. 몰몬경을 번역한 이 원본 원고를 잘 살펴본다면, 분명 조셉에게 힘이 되었을 구절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나의 부친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앎이나이다 하였더라.”(니파이전서 3:7)

또한 그는 이보다 조금 앞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 니파이는 주의 친절하신 자비가



Family having mine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택하신 자 모두의 위에 있어 그들을 능하게 하여, 참으로 구원의 능력에 이르게 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여 주리라.”(니파이전서 1:20)

그렇습니다. 물문경의 주제이자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삶에서 주제가 되었던 것은 신앙을 행사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의 사업 안에서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되는 과정은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컨대, 철자법을 잘 몰랐던 조셉은 *코리안투머*[*Coriantumr*]의 이름에서(히라맨서 1:15 참조) 잘못된 철자를 바로잡았습니다. 가장 많이 서기로 봉사했던 올리버 카우드리가 만든 오류였습니다. 처음에 조셉이 올리버에게 이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올리버는 이 이름을 *Coriantummer*로 썼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영어에서는 “mr”로 끝나는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셉은 오히려 철자법을 잘 알지 못했기에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철자를 따르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그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철자를 바로잡았습니다. 이런 철자법은 영어에서는 좀처럼 쓰지 않지만, 애굽어에서는 완벽한 방식이며 고대 언어에도 잘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잘 압니다. 계시가 아니었더라면, 조셉은 이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sup>6</sup>

###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문경 번역의 기적은 조셉 스미스가 어떻게 연약함으로부터 강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개인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조셉처럼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연약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리라는 의미입니다.

조셉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겸손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젊음의 약점과 인간 본성의 결점을 드러냈[다]”고 고백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28) 나중에 그는 나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으므로, 내가 완전한 사람이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 그들이 나와 나의 형제들의 약점을 수용한다면, 나도 그들의 약점을 수용할 것[입니다.]”<sup>7</sup>

조셉은 절대 완벽하거나 빈틈없는 척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선지자로서 일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인간으로서 말할 때, 제 말의 주인은 오직 저 조셉 스미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의 주인은 더 이상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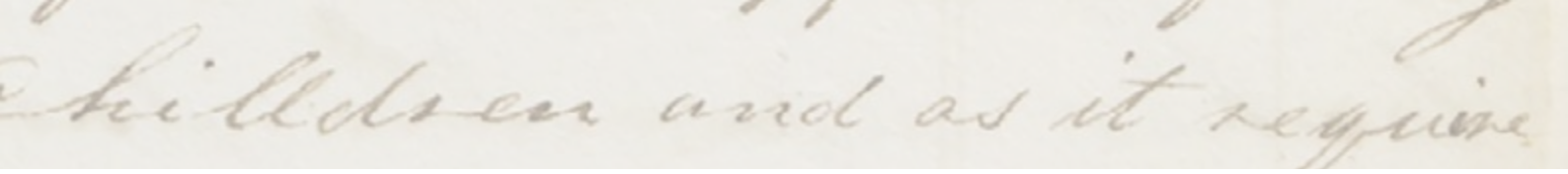
그리하여 조셉은 연약함으로부터 강하게 되어,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역사를 통틀어 어떤 선지자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했습니다.(교리와 성약 135:3)

우리의 변치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또한 연약함으로부터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그러했듯 마음의 뜻을 다하여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father, I will go and do the  
commandments for I know  
commandments unto  
shall prepare a way for  
Hish the things which

물문경 원고에서 발췌한 니파이전서 3장 7절.



## 기도와 겸손

하나님은 해의 왕국의 화학 반응 원리에 따라 우리가 강하게 되는 과정이 일어나도록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이 과정은 현재와 영원에서 유일한 길인 그분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또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이더서 12:27)

이 성구에 따르면, 주님은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연약함을 주십니다. 스스로 겸손해지고 그분 안에서 신앙을 행사하기를 택하는 사람은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작용하게 하는 데 꼭 필요한 촉매가 됩니다.

세상에는 다음 성구에서 설명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현명하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아는 듯 여겨 하나님의 권고를 옆으로 제쳐놓음이라. 그런즉 그들의 지혜는 어리석음이요, 그것이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니파이후서 9:28) 이러한 자만심의 해결책은 “[우리]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로 여겨 지극히 겸손”해지는 것입니다.(니파이후서 9:42)

조셉은 어려서부터 겸손한 성품을 기르는 가장 좋은 열쇠는 진지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교회의 초기 회원인 대니얼 타일러는 많은 사람이 선지자를 등졌던 커틀랜드 시절을 회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여 선지자가 회중과 함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본 타일러 형제는 그때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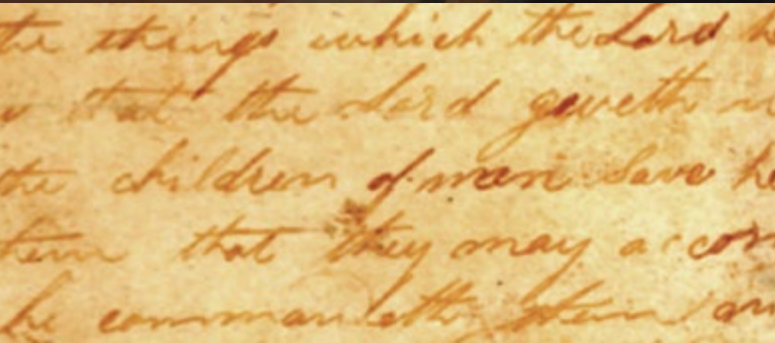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 보았지만, ... 그런 기도는 처음이었다. 마치 친절한 아버지가 충실한 자녀의 슬픈 사정에 귀 기울여 주는 것처럼 창조주께서 곁에서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말을 건네는 듯한 기도였다. 당시 조셉은 배움이 짧은 사람이었지만, 길에서 벗어났다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드린 그 기도에는 배움이 깃들어 있었으며, 그것은 천국의 웅변과도 같았다. ... 휘장이 걷히기라도 했다면, 내가 본 가장 겸손한 종을 마주하고 서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sup>9</sup>

## 연약함에서 나오는 힘

조셉은 자신이 열일곱 살 무렵에 모로나이에게서 들은 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전하였으며, 나의 이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며 모든 백성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리며 나쁘게도 오르내리리라고 말하였다.”(조셉 스미스-역사 1:33)

분명 당시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인터넷 시대에는 농장에 살던 무명의 소년이던 그의 이름이 실제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좋게도 나쁘게도 오르내립니다.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가 일리노이 주 카테지 감옥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하이럼은 조셉을 비롯하여 감옥의





같은 방에 있던 이들에게 다음 구절을 읽어 주고 경전에서 그 부분을 접어 둡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주께 기도하여,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로 사랑을 갖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느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사랑을 갖지 아니할지라도 네게는 상관 없나니, 너는 충실하였도다. 그런즉 네 옷이 정결하게 될 것이요, 또 네가 네 연약함을 알았은즉 네가 강하게 되어, 내가 내 아버지의 거처에 예비한 처소에 앞기에 이르리라 하셨느니라.”(이더서 12:3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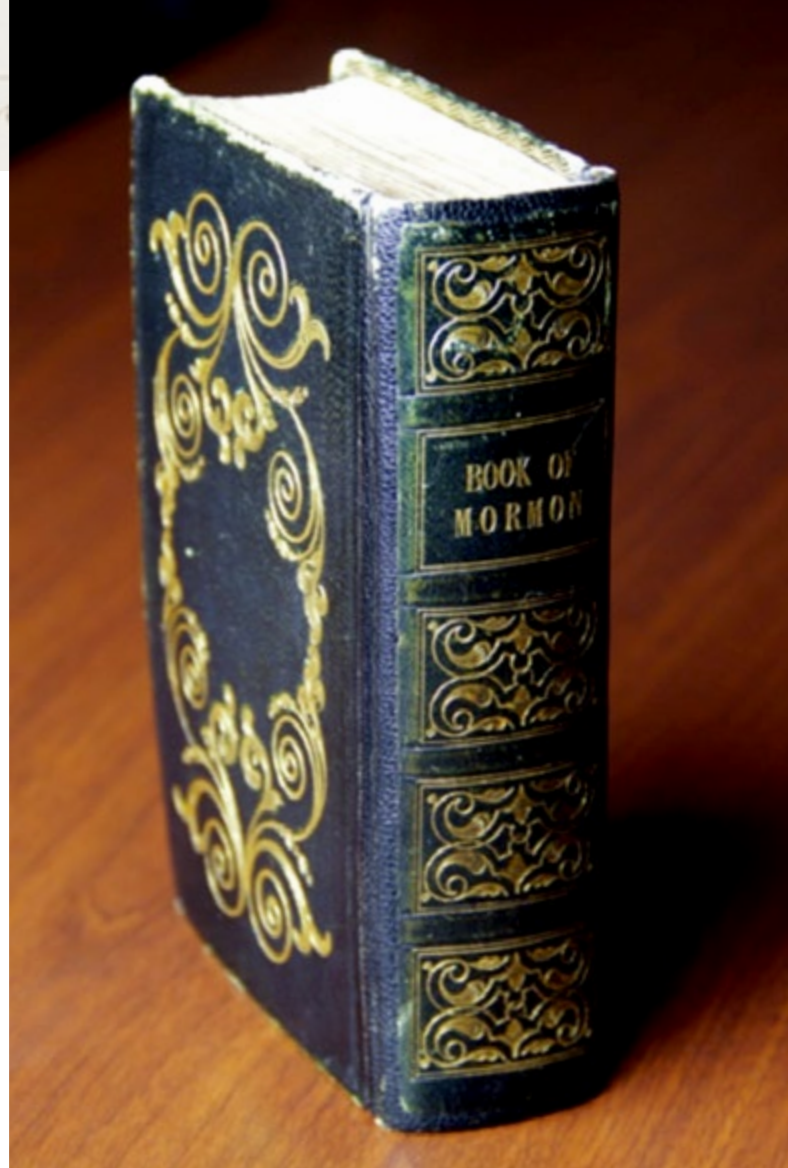
문자 그대로 조셉은 연약함으로부터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신앙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은 자신의 연약함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조셉은 평생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첫번째 시현을 경험했고, 물문경을 번역했으며, 신권 열쇠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한 상태로 세상에 전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조금씩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셉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더하여” 강하게 되었으며, 여러분과 저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쳐 강하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8:21; 또한 이사야 28:10; 니파이후서 28:30 참조)

그러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강하게 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주를 따르며 그분의 뜻을 행하겠다는 변함없는 결의로 인내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 은사가 돌아오다

16세기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윌리엄 틴들은 평민의 손에 성경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던 학식 있는 이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부지하게 해 주신다면, 나는 **머지않아 쟁기질하는 소년이 당신보다 경전을 더 많이 알게 만들겠다!**”<sup>10</sup>

흥미롭게도, 이와 아주 유사한 일이 30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1830년대를 풍미한 순회 설교자였던 낸시 타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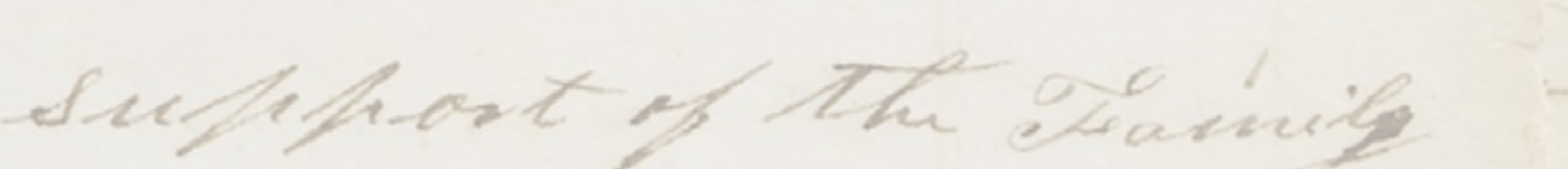


**하이럼은 조셉과 함께 일리노이 주 카테지 감옥에 갇힌 채 죽음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조셉과 동료들에게 이 물문경을 읽어 주었다.**

개인적으로 “물문들”을 살펴보고자 커틀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타울은 조셉 스미스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타울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가 조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금관이 있는 곳을 보여 주었다고 맹세해 보라고 요구하기 전까지 조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셉은 부드러운 어조로 자신은 절대 맹세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셉이 동요하지 않자, 타울은 조셉을 꺾어내렸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배운 것도 없이 땅에서 쟁기질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조셉은 평온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그 옛날 까막눈 어부가 받았던 그 은사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sup>11</sup>



그러므로 탄들의 말에는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쟁기질하는 소년이 구주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틀림없이 경전을 더 많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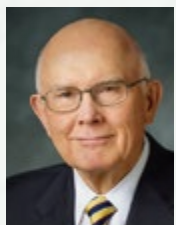
분명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한 것은 미국의 개척지에서 “쟁기질하던 소년”인 조셉 스미스가 혼자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회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매개 삼아 하신 일이었습니다. 조셉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야곱의 생각에 공감했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이시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 그의 은혜와 사람의 자녀들에 대한 그의 위대한 낮추어 오심에 의한 것인 줄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야곱서 4:7)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함없다는 것과, 그가 연약함으로부터 강하게 되었음을 압니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은 말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제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언제나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은 심정입니다.”<sup>12</sup> 저는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그런 특권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세상은 조셉을 다시 알리라”는 이 시적인 약속을 떠올리며 위안을 얻습니다.<sup>13</sup>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있었고, 그가 자신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음에 깊이 감사합니다. 또한 저는 조셉 스미스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도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 뜻을 행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로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리라는 교리를 통해 큰 힘을 얻습니다. ■

2013년 2월 10일 미국 유타 주 로건에서 열린 제70회 연례 조셉 스미스 추모 영적 모임에서 전한 말씀인 “연약함으로부터 그가 강하게 되리니”에서 발췌함.

주

1. 교회 역사부에서 일하는 동료로서 사려 깊게 조언해 준 리차드 이 텔리 이세와 제드 우드워스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한다.
2. Joseph Smith, *The Joseph Smith Papers, Histories, Volume 1: 1832-1844*, ed. Karen Lynn Davidson and others (2012), 11.
3. Joseph Smith, “Letter to William W. Phelps, 27 November 1832,” 4, josephsmithpapers.org.
4. Emma Smith, in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90; spelling standardized; see also Russell M. Nelson, “A Treasured Testament,” *Ensign*, July 1993, 62–63.
5. Joseph Smith, in *The Joseph Smith Papers, Journals, Volume 1: 1832-1839*, ed. Dean C. Jessee and others (2008), 9.
6. “코리엔투머[Coriantumr]”와 고유 명사의 철자법에 관해서는 Royal Skousen, *Book of Mormon Authorship Revisited: The Evidence for Ancient Origins*, ed. Noel B. Reynolds (1997), 61-93 참고. 스코우슨은 물론경 원본 원고에서 증거를 들어, 본문에 고유 명사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올바른 철자로 기록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이 나오면 철자가 틀릴 때가 있는데, 이 점에 비추어 각 이름이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조셉 스미스가 철자를 불러주지만, 그 후로는 서기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이름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522쪽.
8. Edward Stevenson, in Hyrum L. Andrus and Helen Mae Andrus, comps., *They Knew the Prophet* (1974), 87.
9. Daniel Tyler, in “Recollection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Juvenile Instructor*, Feb. 15, 1892, 127; see also *Teachings: Joseph Smith*, 127.
10. William Tyndale, in S. Michael Wilcox, *Fire in the Bones: William Tyndale—Martyr, Father of the English Bible* (2004), 47.
11. *Vicissitudes Illustrated, in the Experience of Nancy Towle, in Europe and America* (1833), 156, 157.
1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 343쪽.
13.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 빠른 속도로 지식을 습득하고 성숙해졌던 조셉 스미스

“선지자 조셉의 성역 기간을 통틀어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그가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청년 시절을 보냈고,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고 성숙해 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14세 때 첫번째 시헌을 보았으며, 17세에 모로나이 천사의 첫 번째 방문을

받았습니다. 21세 때 금판을 받았으며, 23세 때는 60일도 안 되는 기간에 물론경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25세가 되기 전에 교리와 성약에 포함된 계시 중 절반 이상을 받았습니다. 26세 때는 제일회장단을 조직했고, 30세 때는 커틀랜드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맬린 에이치 욱스 장로, “조셉, 의로운 자이며 선지자”,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71쪽.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다 2부:

#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 찾기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누릴 축복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잃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 벤티 밴덴버그

편집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앙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교회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최근에 Unity in Diversity[다양성 안에서 하나가 됨]라는 동영상 시리즈에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다. 2017년 9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을 무리 안으로 포용하기” 편에서는 다른 이들을 맞이하는 우리의 책임에 관해 알아보았다. 그 두 번째 이야기인 본 기사에서는 소속감을 꼭 느끼진 못하더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알아본다.

**8**년 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파울로는(모든 이름은 가명임) 브라질에 있는 감독에게서 안부 전화를 받았다. 파울로는 예전부터 교회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무 문제 없이 활동적으로 교회에 다니기에는 걱정이 너무

많았다. ‘나는 아직 독신인데, 자녀가 있는 다른 기혼자들과 비교되지는 않을까?’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과연 친구를 사귄 수 있을까? 친구가 생긴다 해도 그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처음 개종했을 때나 선교 사업 때처럼 다시 영을 느낄 수 있을까? 부름을 받아들일 만한 신앙이 있을까?’

감독의 전화를 받고 한 달이 지날 무렵 연차 대회가 열렸다. 파울로는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전한 말씀을 듣게 되었다. 파울로는 “그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몇 주 후, 파울로는 이끌리듯 교회 주차장에 와 있었다. 그는 차 안에 앉아서 부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교회 건물로 들어갈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며 떨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간구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파울로는 교회로 돌아온 후 첫 일 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한다. 다시 회원들과 어울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파울로는 구주를 가깝게 느꼈고, 성전 추천서를 받고자 깊이 소망했기에 불안한 감정을 떨쳐 낼 수 있었다. 파울로는 다시 경전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소속감을 느끼려고 힘겹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조언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힘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축복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곳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증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울로의 이야기를 통해, *Unity in Diversity*[다양성 안에서 하나가 됨] 동영상 시리즈에서 지도자들이 설명한 몇 가지 요점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교회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과 조언이 담겨 있다. 때로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서도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배척당하거나 홀대받는 등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강조한다. 즉,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며,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무엇보다도 구주를 신뢰할 수 있다.

### 비교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모두 축복받을 것이다.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점점 낙담하거나 자만하게 됩니다. ... 축복은 이른 시일 내에 주어지기도 하고 오랜 시일이 걸려서야 주어지기도 합니다. 휘장을 통과한 이후에 주어지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영생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로셀은 노숙자 보호소에서 얼마간 지내다가 미국 서부의 한 부유층이 사는 동네의 깔끔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이혼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야 했던 터라 로셀은 식비와 월세를 충당하기 위해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곤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침례를 받은 이후 저활동과 활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새로 나가게 된 와드의 회원들은 대부분 저보다 형편이 나은 분들이었지만, 제게 다가와 말을 걸어 주었고 제가 옷을 입을 방식 등을 편하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느끼면서도, 로셀은 결코 주위 회원들의 넉넉한 형편을 보며 답답해하거나 분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녀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물론 재정적으로 더 안정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죠. 하지만 저는 결코 이웃들이 사는 집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께서 저를 잊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했던 잘못된 선택들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언제나 제 곁에서 저와 함께 걷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죠.” 로셀의 근무 시간은 때때로 많이 바쁘고 여유를 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와드 지도자들과 친구들은 결국 그녀를 도와 성전에 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 로셀은 말한다. “성전에 정기적으로 가면서 저는 제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물론 주위 회원들보다 제가 한참 부족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건 걱정하지 않았죠.” 로셀은 자신과 그녀의 딸이 힘겨운 시간을 보냈으며 “이상적인 후기 성도 가정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어떤 가정도 실제로 완벽한 가정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관점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자신의 소유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해

주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복음으로 인해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제 딸이 여실히 목격했죠. 저도 물론 그렇고요. 이제 저는 직장과 가족과 교회에서 맡은 일들로 바빠서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할 시간조차 없네요. 저는 그저 제가 옳은 길 위에 있다는 것이 행복할 뿐이에요.”

### 굳건히 견디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

“옆에 앉아서 나를 분체만체하거나 아예 다른 자리로 가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겠다고 굳게 다짐해야 합니다. 생각이 없거나 경솔하거나 그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매튜는 어려서부터 주로 규모가 작은 지부에 다녔다. 매튜와 우크라이나 출신의 개종자인 아내는 여러 부름을 받는 것에 익숙해진 상태로 다국적 후기 성도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중에 미국으로 이주했다. 매튜는 와드가 커지고 문화적인 기대치가 달라지자 자신들이 “쓸모없게 느껴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기분이 들었다고 말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힘든 것 같았어요. 안식일이면 고양되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좌절감이 쌓이다 문제가 터져 버린 것은 그들이 다른 도시로 이사한 후였다. 매튜 부부는 지역 신권 지도자가 집을 방문한다고 해서 무척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지도자는 매튜의 자녀들이 성찬식 시간에 너무 소란스러우니 조용히 시켜 달라는 말을 전하러 온 것이었다. 그 일로 크게 상처받은 매튜는 더이상 교회에 나가지 말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때 저를 붙잡아 준 것은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구주께서는 제가 그곳에 있기를 바라신다는 간증이었어요.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일을 겪더라도,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얻게 될 결과는 그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상황에 따라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며,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은 후기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톨릭 작가인 데이비드 밀스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기술하며, 교회에는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교육을 더 받은





사람도 있고 털 받은 사람도 있으며, 인종, 민족, 연령이 다른 사람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중에는 이런저런 내 사회적 관계망에 넣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 안에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관계망이라기보다는 공동체에 가까운 몇 안 되는 환경을 만나게 된다. … 우리는 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훗 내키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사랑을 담아 행동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종교 공동체에서, 마치 소셜 미디어에서처럼 누군가를 단순히 차단하거나 언팔로우(unfollow)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그 어려움을 이겨 낼 유일한 방법일 때가 종종 있다.

매튜는 교회에서 끝까지 활동적으로 생활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매튜는 말한다. “다른 무엇도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덕분에 저는 계속 교회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포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교회 회원인 재스민은 이렇게 말한다. “저희 워드에는 제 일에 심하게 간섭하는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는 그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결국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죠.” 하지만 교회로 다시 돌아갈 일에 대한 불안감보다 어린 아들에 대한 염려가 더 앞서기 시작했다. 그때 재스민은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남의 의견 때문에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일요일, 재스민은 용기를 내어 교회로 향했고, 재스민의 단출한 가족은 곧 회원들에게 따뜻하게 환대받았다. 그들은 재스민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소중한 친구들이었다. 재스민은 말한다. “떠났던 것을 후회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 다시 돌아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복음의 중심은 다른 사람이나 내가 아닌 구주시니까요.”

###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빛이 따를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먼저 빛이 비쳐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 있기 전에는 암흑 속으로 발을 내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빛이 따라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새로운 회원들의 경우, 미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없으면 복음에 뿌리내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대만의 주부인 메이신은 자녀들을 세상으로 데려오라는 복음의





권고를 따르면서 신앙의 이러한 측면을 배우게 되었다. “대만 문화에서는 대부분 아이를 한 명만 낳거나 애완동물만 키우기 때문에” 그 권고를 따르기가 만만치 않았다. 메이신은 아이를 가질 때마다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신앙이 필요했고, 친척들과 문화 전반에서 오는 극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신앙이 필요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발을 내디뎌야 할 때가 있는데, 새로운 회원들에게는 이것이 두려운 일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 길에서 주님이 도와주시리라는 믿음을 키워야 한다. 베드나 장로는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불안하고 불확실한 느낌이 들기 마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족을 이루는 것이든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든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한 걸음을 내디딘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증거는 신앙의 시련을 겪은 후에 임하기 때문이다.(이더서 12:6 참조) 메이신과 남편은 가족을 이루고 나서야 그러한 증거를 얻었다. 메이신은 말한다. “저희는 자녀가 있어서 행복하고 정말 감사해요. 저희는 검소하게 사는 법과 서로 돕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을 이 세상에 데려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첫걸음이 가장 어려운 법이다. 베드나 장로는 말한다. “어둠 속으로 처음 발을 내디딜 때는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확신이 들지 않거나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순조로울 수만은 없다.(베드나 장로는 그 과정은 “방해가 전혀 없는 완벽한 경로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신앙이 자라는 가운데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러시아와 유럽에 접한 그루지야에서 개종한 라자르는 앞으로 나아가려면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후기 성도 친구들을 신뢰하는 법을 알게 된 후에야 신권 축복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나니 선교사 토론으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자라자,] 완전한 확신 없이도 침례라는 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단계 단계마다 용기를 주셨고 이제는 제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에 감사드려요.”

### 포기하지 않는다

“죄를 너무 많이 지었거나 너무 멀리 갔거나 너무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무리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빛이 닿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닿을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미국 유타 주의 독실한 후기 성도 가정에서 자란 브라이언은 교회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저는 판타지 게임이나 영화, 록 음악을 즐겼어요. 스카우트나 경전, 세미나리, 운동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집을 떠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무섭게 브라이언은 집을 얻어 분가했다. “무엇이든 다 해 보고 싶었어요. 성생활과 마약도요.” 브라이언은 스스로 “방탕한 생활과 실험”이라고 부르는 시간을 보내고 재정적으로 궁핍해지자 다시 부모님과 살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여동생이 태어나자, 브라이언은 자신의 사고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동생을 만나 들었을 때, “동생이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회상한다. 브라이언은 다소 마음을 졸이며 여동생의 유아 축복에 참석했다. 성찬이 건네지자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성찬을 취하고 싶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한다.

브라이언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하루는 밤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제가 처한 영적 딜레마에 관해 적어 보는데, 그때 처음으로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좋은 쪽은 아니었지만요.” 브라이언은 사악하고, 불쾌한 분노의 기운이 자신의 영혼을 에워싸려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일이 있고서 저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말한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줄곧 방황했던 브라이언은 “과연 [자신이] 주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다시 성찬을 취할 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었다.

돌아가는 길은 험난했다. 담배를 끊는 것은 쉽지 않았고, 감독에게 고백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으며, 예전에 어울리던 친구들과 즐기던 활동에서 등을 돌리기도 힘들었다. 가족, 여자친구, 감독까지 모두 그를 도와주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가장 큰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님은 정말로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브라이언은 말한다. “이전에 즐기던 것들 대신 새롭게 즐길 거리를 찾을 기회도 생겼어요. 복음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할수록 제가 가야 할 길이 더 분명해졌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기꺼이 그를 용서하고 치유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성찬은 더 큰 의미로 다가왔고, 그 덕분에 브라이언은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 “어린 시절 교회에 다닐 때도 수백 번은 더 성찬 빵과 물을 먹었지만, 이제야 마치 처음 같은 느낌으로 성찬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내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없다

떨리는 마음으로 차에서 내려 교회로 들어가고, 다른 회원들에게 손을 내밀며, 마음 아픈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복음대로 생활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저마다 힘들고 불확실한 길을 따라 생명나무를 향해 걸어간다.(니파이전서 8장 참조)

그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구주를 따르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이 꼭 필요하다. 교회 회원과 지도자들에게 격려받고 사랑받으며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혼자라고 느껴지더라도 기꺼이 구주를 따라야 하는 순간과 맞닥뜨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손길로 스스로를 변화시키자. 또한, 약속된 보상을 기억하고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니파이후서 31:20)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 NOTES

1. 다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21~24쪽 참고.
2. David Mills, “Go to Church, Meet Annoying People,” Feb. 1, 2017, [aleteia.org/2017/02/01/go-to-church-meet-annoying-people](http://aleteia.org/2017/02/01/go-to-church-meet-annoying-people).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 피난처와 보호처

제들리우 월터 야거 에 실바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신다. 교회가 심각하게 박해를 당하던 시절, 주님께서는 “폭풍우를 피...할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가 되는 시온에 집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교리와 성약 115:6; 강조체 추가)  
우리는 “여러 계명을 상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할 때 이러한 피난처와 보호처를 찾을 수 있다.(교리와 성약 1:37)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오늘날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유혹과 악, 여러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줄 보호처와 피난처가 될 몇 가지 원리들을 교리와 성약에서 살펴보자.

### 성신을 구할 때 보호받는다

우리는 성신을 동반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낼 피난처와 보호처를 얻을 수 있다. 주님께서는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계시의 은사를 “활용”한다면 “원수들의 손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를 죽이고 네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리라”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8:4) 올리버 카우드리는 영의 음성으로 죽음과 죄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자.

우리는 성신의 권능을 통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인간의

계율과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무릇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한 자는—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짙혀 불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 날을 견디리라.”(교리와 성약 45:57; 강조체 추가) 성신의 권능은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새기고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하지만 영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시련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교리와 성약 122편을 보면 우리가 합당할 때도 슬픔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을 아시”는(교리와 성약 127:2) 하나님의 시각과

지혜 안에서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122:7)

### 살아 있는 선지자를 따를 때 보호받는다

교회가 조직되던 날,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선지자의 말을 듣도록 명하셨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기록하게 걸으며, 그가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그의 모든 말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일지니,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교회 회장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니라.

이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지옥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흠어버리고 너희 유익과 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21:4~6)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주의 팔이 드러나리니, 주의 음성과 그의 종들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림을 당할 그 날이

오는도다.”(교리와 성약 1:14; 강조체 추가)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이를 적용하면 보호와 안전을 약속받는다. 그들은 우리가 현재 처한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하며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살아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축복인가.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101편 43~62절에서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중요성을 포도원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망대 위의 파수꾼에 비유하신다. 고대에는 망대를 짓고 그 위에 파수꾼을 두어 성읍 너머를 살피게 했다. 그리하여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올 때 백성들에게 경고할 수 있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한다. “망대를 지어 한 사람으로 주위의 땅을 살피보게 하여 망대 위의 파수꾼이 되게 하고, 그리하여 원수가 와서 나의 포도원의 열매를 노략하여 가져가려 할 때에, 나의 감람나무들이 꺾이지 않게 하라.”(45절; 강조체 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교리와 성약에 담긴 가르침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준다.



벨라드 장로는 살아 있는 선지자의 권고를 받을 때 받는 보호와 축복에 관하여 이렇게 가르쳤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신다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 교회 회장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권고를 들을 때, 우리는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 선지자의 권고에 따라 때 안전과 평안, 번영과 행복이 함께했음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육체적으로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보호받는다. 사실이다. 우리는 영적 보호가 절실하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를 속이기를 구하였”기 때문이다.(교리와 성약 50:3)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철학과 “미혹하려고 엮드려 기다리는 사람들의 간교한 계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교리와 성약 123:12)

#### 결혼 생활에 충실할 때 보호받는다

주님께서서는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은 영원무궁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교리와 성약 132:19 참조) 이 승영의 교리는 세상을 병들게 하는 “관계”에 대한 거짓 속에서 피난처 역할을 한다. 세상은 결혼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편한 점이 많으며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님께서서는 “결혼을 금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성임된 자가 아니니,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것”이라고 선포하신다.(교리와 성약 49:15) 주님께서서는 결혼을 지키는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신다.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네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22)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은 이 계명의 포괄적인 성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님께서 네 온 마음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는 나누거나 [빼놓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그것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네 남편을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

다른 *아무와도*라는 말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남편과 아내는 [서로] 배우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며, 사회생활, 직장 생활, 정치 생활, 기타 다른 어떤 이해관계나 사람이나 사물도 배우자를 우선할 수 없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좋게도 나쁘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님께서서는 그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이 경고하신 것 같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신앙을 부인할  
것이고, 영을 가지지 못하리니,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쫓겨날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42:23; 강조체 추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우리는 눈과 마음을  
오직 배우자와 주님께 두어야  
한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유혹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마련하신 방안이다.

#### 선교 사업을 통해 봉사할 때 보호받는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가 많이 있으며 주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신다.(교리와 성약  
76:5) 교리와 성약에는 선교  
사업에 관한 위대한 원리들이  
담겨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다. “가서 왕국의  
이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일에 변함없이 충실하기를  
마지아니하는 자는 어떠한 자도  
마음이 지치지거나 어두워지지  
아니할 것이고, 몸이나 수족이나

관절도 지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머리 털 하나라도 아무도  
몰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은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4:80) 주님께서서는 어려움을  
면제해 주지는 않으시되,  
신성한 보살핌을 받게 하리라고  
약속하신다.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고,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고,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봉사한다면 우리를  
보호하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니, 권능이  
네게 머물러 있을 것이라. 너는  
큰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네  
앞장을 서리라.”(교리와 성약  
39:12) 온 마음을 다해 선교  
사업을 하는 이들은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받는다.(교리와 성약 14:11)

선교사로 봉사하는 이들의  
가족에게도 보호가 약속된다.  
“나 주는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내가 그들의  
가족을 부양할 것이고, 이제부터

그들에게 효과적인 문이  
열리리라.”(교리와 성약 118:3)

또한, 주님은 충실한  
선교사들을 향하여, “네  
죄가 사함 받고 네 등에  
곡식 단을 지게 되리”라고  
약속하신다.(교리와 성약 31:5)  
이 축복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피난처이다.

#### 십일조의 법에 순종할 때 보호받는다

교리와 성약에는 십일조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보라, 이제 인자가 올  
때까지를 오늘이라 일컫나니,  
진실로 오늘은 희생의 날이요,  
나의 백성의 십일조를 위한  
날이라.”(교리와 성약 64:23)

십일조의 법은 수학의 원리에  
들어맞지 않는다. 십일조의  
법에 따르면 90이 100보다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입의  
10퍼센트를 드리면, 주님은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말라기  
3:10; 또한 제3니파이 24:10 참조)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강한지 가능해 보려면 십일조의  
법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십일조를 바치는



선지자는 망대 위의 파수꾼처럼  
멀리 내다보고 적의 접근을  
경고한다.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런 가르침을 전한다. “지금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이 되고 꾸준히 순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심함으로써 마침내 우리는 신앙이 강화되고 마음이 부드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재물을 바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그와 같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64:23 참조] 그러므로 지금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꾸준히 행할 것을 결심한다면, 분명 그러한 보호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갖추어질 것입니다.”<sup>3</sup>

####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보호받는다

우리는 건강을 위협하는 해로운 물질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겪을 일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는 1833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다. “마지막

날에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악과 의도로 인하여 계시로써 이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경고하였고 또 미리 경고하노[라].”(교리와 성약 89:4)

또한, 주님께서 주신 건강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배꼽에 건강과 그들의 뼈에 골수를 얻을 것이요[신체적 건강],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니[지적, 영적 축복],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할[신체적 건강]”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와 더불어, 주님은 안전의 축복도 약속하셨다. “그리고 나 주는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멸하는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한 것같이 그들을 지나칠 것이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18~21)

이 약속은 우리가 죽지 않으리라는 의미가 아니다. 죽음은 영원한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것은 불의한 자들에게 그들이 지은 죄를 벌하기 위하여 오는 멸망의 천사가 옛날 애굽

사람들의 잘못을 벌했던 것과 같이[출애굽기 12:23, 29 참조] ... 모든 성도를 지나칠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sup>4</sup>

### 거룩한 곳에 서 있을 때 보호받는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곳에 서”있으라고 거듭 명하신다.(교리와 성약 45:32; 87:8; 101:22 참조) 성전은 분명히 거룩한 곳이다.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말했다.

“우리가 행하는 바를 인식한다면 엔다우먼트는 평생 우리를 보호해 주는 의식이 될 것입니다. 성전에 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아버지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께서는 고통과 유혹을 받을 때 주님의 집에서 맺으신 약속, 즉 성약을 떠올리면 그것들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sup>5</sup>

성전과 더불어 예배당과 교회 집회소 내부의 교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모두 헌납된 거룩한 장소이다. 이 안에 거하는 자들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이러한 장소는 거룩한 곳이 된다. 우리는 계명을 지킬 때 성신을 동반하고 성신의 지시를 받으며 위로를 얻는다. 항상 성신을 동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장소에 서게 될 것이다.

###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교리와 성약에 담긴 보호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았다. 이 원리들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와 같이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어디에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여쭙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이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어린아이들이 기뻐하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교리와 성약 61:36) “들으라, ... 사람의 연약함과 유혹에 빠진 자를 어떻게 도울지를 아는 주 너희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변호자가 이르노라.”(교리와 성약 62: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 가르침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보호처와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짐을 털고, 죄와 어려움을 이겨 내며, 진정한 성도로 거듭날 힘을 얻을 수 있다. ■

글쓴이는 브라질 쿠리치바에 산다.

### 주

1. 엠 러셀 벨라드, “너희는 저의 말을 받아들이라”,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79~81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터블유 킴볼(2006), 199쪽.
3. 헨리 비 아이어링,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0쪽, 번역 수정.
4. J. Reuben Clark Jr., in Conference Report, Oct. 1940, 17; 또한 *교리와 성약 학생 교재*(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01년), 211쪽 참고.
5. Joseph Fielding Smith, “The Pearl of Great Price,”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July 1930, 103; 또한 *교리와 성약 학생 교재*, 259쪽 참고.



## 성탄절에 구주의 사랑을 나누다

**나**는 2016년 교회의 성탄절 캠페인인 “세상을 비추라”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 들떠 있었다. 그리고 일일 과제 완수를 베풀던 차에,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셨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5일째 주제는 특히 기대되는 과제였다.

5일째 되던 날, 나는 근무를 마치고 조부모님께 들를 생각으로 어둠이 내린 도심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기분이 무척 좋았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세상은 아름다웠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자선 단체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런데 전차 정류장이 가까워질 무렵, 한 노숙자 여인이 종을 치던 자선 단체 직원에게 내치르는 고함에 종소리가 묻히고 말았다.

“당신들은 가짜야!” 여인은 소리쳤다. “춥고 배고픈 건 난데 그 돈은 당신들이 다 가지고 가잖아! 당신들은 가짜야!”

대부분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 직원은 계속 종을 울렸다. 헤드폰을 낀 내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요란한 고함이었다. “당신들은 가짜야! 난 배도 고프고 춥단 말이야!”

주머니에 20달러가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여인에게 그 돈을 줄까 잠시 고민했다. “안돼, 이왕 줄 거면 더 좋은 사람에게 주어야 해.” 그 순간, 영은 그날 내가 완수하려고 했던 과제가 무엇이었고 내가 누구를 닮으려고 했었는지를 되새겨

주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으나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셨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다.

나는 여인에게 다가갔다. 여인은 이제 잠잠해진 상태였지만,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2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여인에게 쥐여 주었다.

“오늘 많이 힘드셨군요?” 나는 물었다.

여인은 나를 쳐다보더니 대답했다.

“네.”

“안됐네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여인을 안아 주었다. 전차가 올 때까지

여인은 내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그리고는 작별인사를 하며 그 여인이 말했다. “고마워요.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안아 주어서 고마워요. 그런 포옹이 정말 필요했어요.”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을 안아 주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분명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당신의 방법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예수님은 아프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우셨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

조던 라이트, 미국 유타 주



**나**는 여인에게 다가갔다. 여인은 이제 잠잠해진 상태였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반송 주소도 없이 내 이름만 적힌 큰 소포 상자 두 개가 와 있었다.



## 내가 성탄절 소포를 받다니!

나는 2003년 성탄절 무렵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나를 제외하고 같은 집에 살고 있던 세 명의 자매 선교사들은 친척과 친구들에게 선물과 편지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리 가족은 형편이 어려웠고, 편지를 보낸다 해도 내가 받기까지는 두세 달이 걸리곤 했다. 그래도 나는 가족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하며 성탄절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다.

성탄절 전야가 되었다. 잘 준비를 하는데 자매 선교사 한 명이 누군가 내 이름이 적힌 소포를 문가에 두고 갔다고

했다.

“저한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깜짝 놀라 말했다.

그런데 정말 반송 주소도 없이 내 이름만 적힌 큰 소포 상자 두 개가 와 있었다. 정말 기뻐다. 다른 자매들도 함께 기뻐해 주었다. 상자 안에는 선물, 간식, 아이들이 그린 그림 등이 가득 들어 있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누가 보내 주었을까?” 정말 궁금했다. 누가 보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 너그러운 사랑에 우리는 모두 행복했다.

성탄절이 지나고 며칠이 가도록 소포를 보낸 사람은 알 수 없었다. 결국, 선교 본부에 전화를 걸어 내게 소포를 보낸 사람을 알려 줄 수 있는지 비서에게

물었다. 비서는 한 와드의 회원들이 성탄절 간식을 넣어서 익명으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 성탄절 전야에 넉넉한 마음으로 큰 사랑을 전해 주시고 내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항상 지지해 주신 그 와드 회원들께 평생 감사할 것이다.

회원들의 격려와 봉사가 있으면, 아무리 먼 곳에서 온 선교사도 봉사하는 지역에서 가정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살아오는 동안 그때만큼 멋진 성탄절은 없었다. 나는 구주께 봉사하는 동안 그분의 교회에 속한 회원들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느꼈다. ■

엘리사벳 안데르센 보가도, 아르헨티나 네우켄



## 딸의 눈으로 바라본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 재현되고 있는 헛간으로 들어가는 길은 고요하고 평온했다. 마구간에는 나란히 놓인 동물들과 함께 요셉과 마리아로 분장한 남녀가 서 있었으며, 마리아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말없이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참으로 평화로웠다.

우리 부부와 큰 아이들은 선 채로 자리를 잡았고, 막내딸은 우리 앞에 있는 건초 더미 위에 앉았다. 딸은 꼼짝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말끄러미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 같이 떠날 참이 되자, 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제 갈 시간이라고 귓속말을 했다. 딸은 아기 예수와 조금 더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이 어찌나 예쁘던지, 나는 딸과 조금만 더 머물기로 했다.

몇 분 후 나는 살며시 딸의 손을 잡으며 이제 가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딸은 아직 더 있고 싶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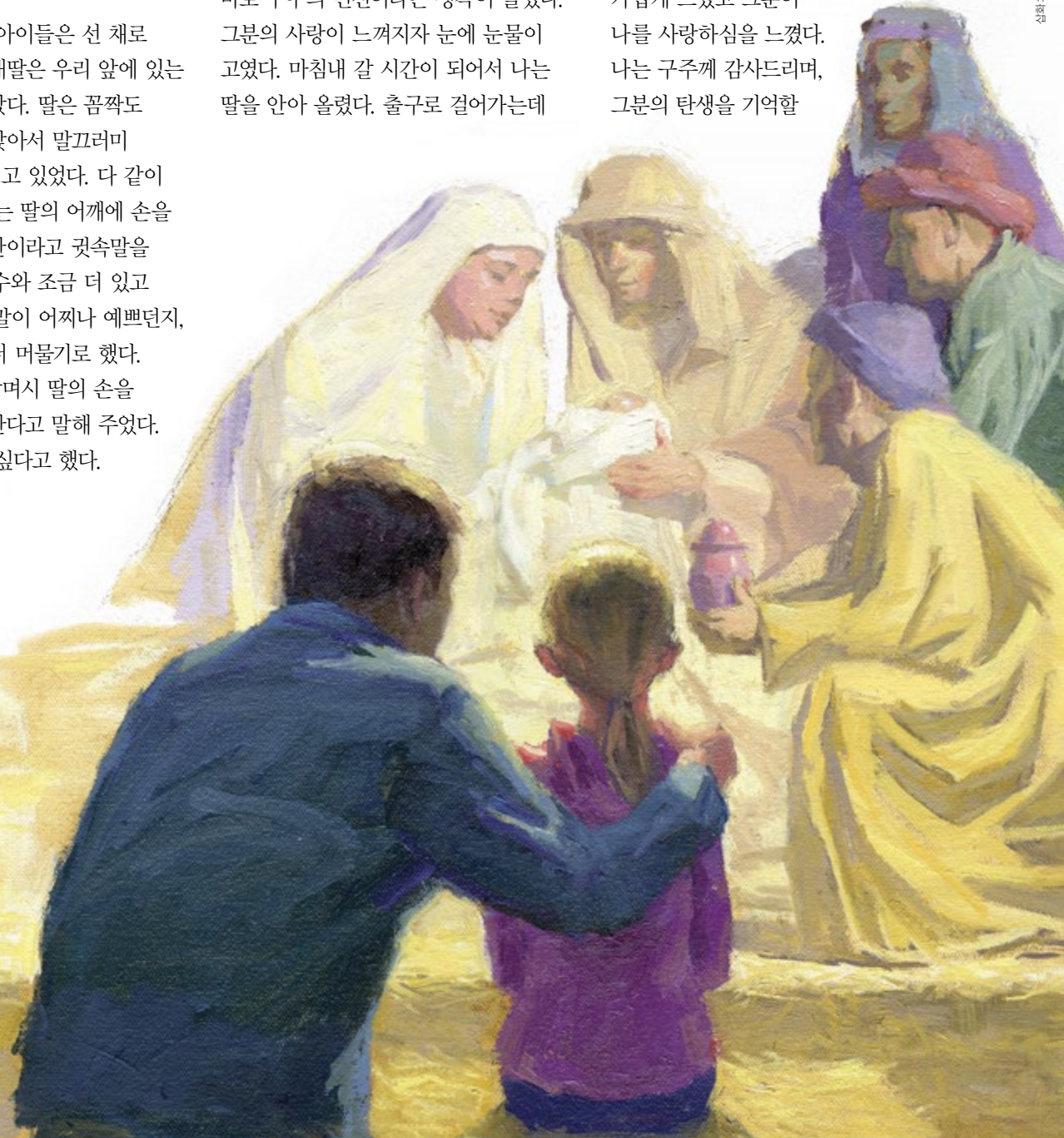
**따**은 꼼짝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 옆에 꿇어앉았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제야 왜 딸이 더 머물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되었다. 영이 온 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곳이 바로 구주의 면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자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마침내 갈 시간이 되어서 나는 딸을 안아 올렸다. 출구로 걸어가는데

딸아이는 아기 예수께 작별인사를 하며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그곳에서 딸과 함께한 시간은 평생 간직할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 순간을 놓칠 뻔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큰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꼈다. 나는 구주께 감사드리며, 그분의 탄생을 기억할



## 우리 가족이 구주께 드린 선물

기회가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구주의 삶과 모범과 속죄는 모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담긴 위대한 은사이다. 나는 이 은사를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할 것이다. ■

애런 애덤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12월이 다가오자, 나는 정신 없이 성탄절 준비에 매달렸다. 우리는 지난 4년 내내 집에서 성탄절 파티를 열었는데, 올해는 적잖이 부담이 되었다. 선물을 사고 음식을 준비하는 등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을 두고 남편과 이야기한 끝에 이번에는 성탄절 파티를 취소하고 뭔가 다른 것을 해 보기로 했다. 구주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우리 가족은 12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주제로 가정의 밤을 했고, 성전에 갔으며, 함께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계획했다. 당시 남편은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성탄절 당일에는 우리 와드에 계시는, 남편을 여윈 자매님들을 위해 노래를 해 드리기로 했다. 그리고 함께 부를 찬송가 몇 곡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그 어리신 예수”(찬송가, 131장)를 좋아했다.

성탄절 전야에는 카드를 만들어서 특별한 성탄 메시지를 적고 함께 드릴 간식도 준비했다. 온 가족이 사랑을 담아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며 한마음이 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기뻐했다. 성탄절의 영을 느낄 수 있었다.

성탄절이 되자, 아이들은 어서 자매님들 댁을 방문하고 싶어했다. 한 집 한 집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행복해졌고, 찬송도 부를 때마다 점점 나아지는 듯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도착한 집은 인기척이 없었다. 몇 분쯤 기다리다 보니 아이들이 지루해하기 시작했다. 한참이 지나서 나이 드신 자매님 한 분이 나오셨다. 안식일 복장에 머리도 곱게 빗으신 모습이였다. 자매님은 우리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셨다. 나는 울컥하여 제대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섯 살배기 딸아이가 집에 가지 말고 계속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아홉 살짜리 아이가 말했다. “내년에도 할 거야!”

우리 가족은 그 성탄절을 잊을 수 없다. 다른 이들을 복돋우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뜻을 전했다 때문이다. 그날 일을 회상하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며 그분의 말씀이 떠오른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

마리아 아파레시다 다 키야마 실바, 브라질 상파울루









2016년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성전이 헌납되자, 조세핀은 매주 성전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조세핀은 성전에 가서 삶의 어려움을 견딜 힘을 얻고 상처를 치유받는다.

레슬리 닐슨, 사진 작가

## 조세핀 시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나는 힘겨운 어린 시절을 겪었다.  
어머니는 라이베리아에서 온 이민자였고, 우리는 가난했다.  
어머니는 믿을 만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나를 맡겼지만 그들은 나를 학대했다.  
그 때문에 나는 삶에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나는 어려움을 겪은 덕분에 복음대로 생활하리라고 그토록 굳게 다짐할 수 있었다.

후기 성도이든 아니든 삶은 녹록하지 않다. 나는 구주와의 관계와 아들 에녹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는다. 성전에서 맺은 성약도 힘이 된다.

누가 뭐라 해도 진리는 진리다. 논쟁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다. 진리는 그저 진리인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며,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다.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사는 사람에게도, 필라델피아 빈민가에 사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그 점이야말로 우리의 끊임없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몽골리아 갓 탤런트!

포 니앤 (펠리페) 초우, 페트라 초우,  
오드게렐 오치르자브

**지**난 12월 몽골 울란바토르 동 스테이크와 서 스테이크 연합 합창단이 몽골 전역에 방송된 **몽골리아 갓 탤런트**에서 준결승에 올랐다. 세미나리 학생과 종교교육원 학생(절반은 귀환 선교사임)으로 이루어진 이 합창단은 이런 기회를 통해 그들의 믿음과 재능을 나누게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2015년에 한 지역 칠십인이 몽골을 방문하여 교회 홍보 노력에 관한 훈련 모임을 했다. 그러나 몽골 울란바토르 서 스테이크 회장인 오드게렐 오치르자브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잘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2016년 1월에 회장의 처남이 전화를 걸어왔다. “지금 몽골리아 갓 탤런트를 보고 있었는데요. ... 매형 교회 합창단도 참가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오치르자브 회장은 합창단장인 우누르자르갈 푸레브 자매와 상의했다. 그녀와 합창 단원들은 몽골리아 갓 탤런트 출전에 대단한 열의를 보였다. 합창단은 시온, 또는 몽골어로 영, 신앙,

생각 및 단결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SION”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 1차전

2016년 3월 1차전에서 SION은 노래 두 곡을 섞어 불렀다. 한 심사위원이 말했다.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전 세계에 이 공연을 소개해야겠어요.”

다른 심사위원은 1등을 하여 상금으로 미화 5만 달러를 받게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합창단에 물어보았다. 합창단이 전액을 성탄절 특별 선물로 보육원에 기부하고 싶다고 답하자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 2차전

SION은 참가한 400팀 중 2차전에 진입한 200팀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합창 단원 35명 중 절반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 연합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와 같은 날에 공연 날짜가 잡혔다. 2차전에 나가기로 결심한 그들은 공연을 마친 후 전세 버스로 8시간을 달려 청소년 대회 장소로 이동했다.

200개의 참여팀 가운데, SION은 준결승에 진출한 32개 팀에 이름을 올렸다. 합창단 소식은 **몽골리아 갓 탤런트**와 관련된 소설

몽골인 중에  
교회를 아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이  
합창단은 그것을  
바꾸어 놓았다.

미디어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 준결승

합창단은 6월부터 9월까지 준결승을 준비했다. 공연 당일, 합창단이 새벽 4시에 일어났을 때 바깥



날씨는 영하 34도였다. 합창단원인 노문게렐 앙크트부신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합창단원 중에는 감기에 걸린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상태가 나아졌어요.”

몽골 전역에서 방송을 본 사람들이 문자로 투표를 했다.

시지르 푸레브도르지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사람이 교회에 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 축복

합창단원들도 축복을 받았다. 오드게렐 투무르수크 형제는 말했다. “우리는 일 년 내내 생업과 여러 맡은 임무를 다하면서 동시에 이 일에 시간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시간을 활용하고 주님께 희생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앙을 키운 것 이외에도, 합창단원들은 자신감을 얻고, 우정을 쌓고, 단합을 배웠다. “합창단에서 노래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돕는 법을 배웠어요.” 간바타르 울지두렌 형제가 말했다. “우리는 더욱 단합하게 되었어요.” 빌군자야 통갈라그톨 자매는 “결코 자신을 의심하거나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베이아르트소그트 라그바자브 형제는 말했다.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축복이 찾아왔어요.

또 제가 한동안 간절히 구해 왔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죠.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해법을 알려 주었어요. ... 이로써 지도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았다는 저의 간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논 달라이쿠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몽골리아 갓 텔런트에 참여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배웠어요.” 달라이쿠 자매가 맡은 일 중에는 단원을 조직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를 통해 그녀는 지도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달라이쿠 자매는 이렇게 덧붙였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화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중에는 아프고, 바쁘고, 피곤한 분들이 많았어요. 막막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 했구요. 하지만 함께 기도했을 때 견딜 힘이 생기고 소망이 더욱 커졌어요.”

합창단은 득표수가 부족하여 결승전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방송을 통해 몽골 전역에 교회를 상당히 많이 알릴 수 있었다. 오치르자브 회장은 말했다. “우리는 신권 지도자들이 주신 임무에 순종했고, 주님은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 이제 도세[울란바토르] 전체가 몽골리아 갓 텔런트에 참여한 물론 합창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글쓴이들은 미국 유타 주와 몽골 울란바토르에 산다.



사진 제공: 오드게렐 오지르자브; 관중 이미지: 게티 이미지



# 구주께 드리는 나의 선물

셰르스톤 픽스톤

**러**시아는 겨울에 너무 춥고  
날은 대체로 흐려서, 하루하루  
우울하고 다소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늦은 11월인 데다가 날씨도  
우울한데, 외롭고, 부족하며, 훌륭한  
선교사가 될 자질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얼마 전에 새로운 동반자를  
훈련하라는 임무를 받았으며, 동반자인  
하트 자매는 훌륭했지만, 그 시절 나는  
언어를 더 배우고, 모범이 되고, 누가  
되었든 간에 가르칠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리는 새로운 선교 회장님이  
펴 지역에서 다섯 시간 떨어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지역 회의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2월의  
춥고 이른 아침에 하트 자매와 나는  
기차역으로 갔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요즘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생각하니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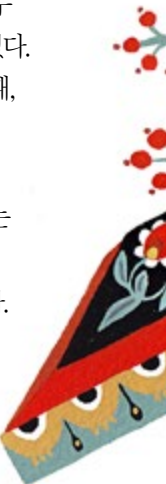
사업을 나왔다는 기쁨도 희미해지고,  
9개월간 봉사하면서 이룬 것이 많지  
않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마침내  
기차가 들어온다는 벨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기차에 올라타 자리에 앉았다.  
어느새 나는 구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분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다음 날 지역 대회에서, 러스트  
회장님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다. 러스트 자매님의 말씀 순서가  
되자 자매님은 구주께서 어떻게 목자가  
되시는지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구주는 해매는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셔서 다시 우리 안으로 데려오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 자매님은 우리를  
위한 구주의 희생에 관해 이야기하시고  
나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시간을 그분의  
잃어버린 양을 우리로 데려오므로써  
그분께 봉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나는 선교사였을 때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구주께 집중할 수  
있을까?**

강하게 간증하셨다. 러스트 자매님은  
구주께 성탄절 선물로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각자 생각해 보라고 권고하셨다.

자매님이 이러한 권고를 하셨을 때,  
내가 구주께 드려야 하는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때까지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과 대화를, 그것도  
러시아어로 하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



러시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라고 생각할까 봐 말하기가 싫었다.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편이 더 쉬웠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나는 나 자신에 관한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 생각해야 했다. 나는 남은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늘 복음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또 이것을 구주께 드리는 나의 성탄절 선물로 정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다음 날 아침 동반자와 함께 펴모로 돌아가는 기차에 탔을 때, 나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내 옆에 앉은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그들은 내가 나눈 이야기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나는 시도를 한 것이다!

구주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점차 나는 더욱 행복해졌으며 더욱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나의 부름을 더욱 잘 완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탄절이 지나간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겠다고 결심했다. 대중교통을 탈 때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상점에서,

도서관에서도,

가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 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더 많은 사람과 이야기했다고 해서 항상 가르칠 사람을 찾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버스 운전사와 근처 식료품 가게 사람들, 또 다른 이들과도 친구가 되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되면, 종종 그들이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며, 먼저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배울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심은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작고 단순한 방법으로 일하시며, 그 일은 때때로 그저 “안녕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시작된다.

예카테린부르크로 가는 기차에서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깨닫게 된다. 그분은 나에게 선교 사업은 나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개인적 걱정, 슬픔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으로 여길 때, 우리 모두는 원하는 행복을 발견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구주께 드리려고 할 때마저도, 그분께서는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100배로 갚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경외감을 느낄 뿐이다. ■

글쓴이는 미국 아이다호 주에 산다.



삽화: 디나나 마틀리콜라 리나그



# 다시 찾은 신앙

돌아오는 길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길은 항상 그곳에 있다.

데이비드 덕슨  
교회 잡지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 [되더라]”(니파이전서 8:28)라는 구절을 몰몬경에서 읽으면서 희망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대부분은 그 반대일 것이다. 당연히 리하이의 생명 나무 시현에 나온 사람들, 즉 열매를 맛본 후 떠나간 사람들의 음울한 최후를 그려 볼 것이다.

하지만 뉴질랜드 출신의 17세 테 오라노아 엠은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본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이 구절을 통해 제가 받는 영감은, 그 사람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인가! 그리고 이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온 통찰이다. “저 자신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었어요.” 그녀가 말한다.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 약해지다

테 오라노아는 교회에서 성장했기에 간증을 쌓고 영적인 목표도 세웠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간증은 식어 갔어요.” 그녀가 말한다.

그녀는 어떤 면에서는 앰올레크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엘마가 앰몬아이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 다음 내용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여러 번 부름을 받았으나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내가 알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앨마서 10:6)

테 오라노아에게, 이 구절은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앰올레크처럼, 저는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것들을 하라고 영이 이야기해 주었지만, 저는 좀 고집이 세었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 했었죠. 그 후, 제 신앙이 조금씩 약해졌어요.”

결국, 테 오라노아에게 앰올레크의 이야기는 단순히 친근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더 큰 의미가 되었다. 그것은 또한 되돌아오는 여정의 전환점이 되었다.

## 따스한 기억을 찾다

신앙이 약해지고 있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이전에 느꼈던 감미로운 경험들을 기억할 수 있었다. 테 오라노아는 청소년들과 함께 성전에 갔을 때나

청소년 대회에 갔을 때 느꼈던 감정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건 마치 정해진 패턴 같았어요.” 그녀가 말한다. “교회에 가면 기분이 정말 좋았지만, 교회를 빠졌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느 날 테 오라노아는 그런 좋은 느낌을 다시 느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녀가 한 첫 번째 일은 최근 연차 대회 말씀을 다 읽는 것이었다.

2016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 가운데 제일회장단 제2보좌 디이더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앨마와 앰올레크에게서 배우십시오”라는 말씀을 읽자 테 오라노아는 영혼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앰올레크의 신앙이 어떻게 약해져 갔는지 설명하셨을 때 자신의 삶과 감정들을 되돌아보았다. 또한 자신의 신앙이 강했을 때 누렸던 행복을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기억해 내었다. 곧바로, 그녀는 변화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제 신앙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불을 붙여 줄 어떤 것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정말로 타는 듯한 느낌을 느꼈어요!”

### 영원을 소망하다

테 오라노아가 신앙을 되찾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그 터널의 끝에 빛이 있었기에 그녀는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 그 빛은 바로 영원한 가족에 대한 소망이었다.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이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꿈이자, 가장 큰 소망이에요. 무언가에 대해 배우려고 할 때마다,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를 발견할 때마다, 저는 다시 영원한 가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왜 나에게 중요한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제가 성전에서 우리 가족에게 영원히 인봉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저의 인생에는 그분의 속죄가 필요하다는 답이 나와요.”

###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다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은, 리하이의 시현에서 열매를 맞본 후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분명 그 열매를 맞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대략적으로라도, 틀림없이 그 훌륭한 맛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것을 찾을 수 있다. 테 오라노아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이를 간절히 믿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그녀의 소망이기도 하다.

“평생 그 금지된 길로 계속해서 내려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녀가 말한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





이 청소년들은 노래 몇 곡으로 얼마나 큰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 성탄절 캐럴의 마법

## 호아킨 형제님을 위한 캐럴

캐럴링은 아르헨티나에서 성탄절에 전통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다. 사실, 이곳의 성탄절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눈이 쌓여 있는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 우리는 남반구에 살기 때문에, 성탄절을 떠올리면 나는 늘 커다란 과일 샐러드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가족 모두 캐럴링을 해 보자고 제안하셨을 때, 우리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신나기도 했다. 우리는 우리의 음악적 역량에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쿠키를 조금 만들어 가서 우리가 방문하는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이유를 하나라도 만들어 주기로 했다.

우리 와드에는 호아킨이라는 형제님이 계신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 와드 소속이셨던 것 같다. 그해 12월, 형제님은 많이 편찮으셔서 더는 성찬식에 참석하실 수 없게 되었다. 아버지와 오빠들은 일요일 교회 모임이 끝나면 병원으로 방문하여 형제님께 성찬을 전달해 드리곤 했다.

성탄절 전 주 일요일, 우리 가족은

호아킨 형제님을 방문하기 위해 차에 올랐다. 그분께 따스한 성탄절의 영을 전해 드리고 싶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우리를 형제님께로 안내해 주었다. 호아킨 형제님은 마치 우리를 기다리시더라도 한 듯 침대 곁에 경전과 찬송가를 두고 계셨다.

형제님은 우리의 방문에 정말로 행복해하셨고, 우리도 그분에게 큰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 형제들은 성찬을 준비하여 축복하고, 전달했다. 떠나기 전에, 우리는 “저 멀리 유대의 넓은 들에”에 나오는 아름다운 선율을 불러 드렸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땅에서는 기쁨과 평화가 있으리라”라고 말이다.(찬송가, 128장)

호아킨 형제님이 우리를 “천사”라고 부르시며, 방문해 줘서 고맙다고 하셨을 때 우리 마음에도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다. 우리가 형제님께 전해 드리고 싶었던 바로 그 느낌이었다. ■

줄리아 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어느 밤의 마지막 목적지

그날은 성탄절 전야였고, 사실 나는 캐럴링을 하러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가족이 함께 비좁은 낡은 차에 구겨 타고 퐁퐁 얼어붙은 길을 운전해 가서 남편을 여인 세 분의 와드 자매님들께 캐럴을 불러 드리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셨고 아빠는 그 제안에 흔쾌히 따라 주셨다.

정말 난감했다. 누가 우리 노래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인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나는 창피해 죽을 것이다. 나는 못마땅하여 툭툭거리며 동생들과 뒷좌석으로 기어들어 갔다.

차를 타고 몇 블록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두 번째 목적지로 차를 몰았다. 다시, 아무도 없었다. 나는 기운이 나기 시작했다.

마지막 목적지의 좁은 진입로에 들어가면서, 나는 “제발 집에 아무도 없기를” 하고 생각했다.

어느새 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엄마가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동안, 입구 쪽 현관은 계속 어두웠다. 좋았어. 곧 우리는 집에 갈 거고, 그러면 난 내 방으로 도망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현관불이 켜지더니 문이 열렸다. 정말 당황스러웠다. 나는 우리가 그 자매님을 방해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들어와요, 들어와.” 작고 깡마른 자매님이 말씀하셨다. 자매님은 낡은 직립형 피아노를 가리켰다.

“피아노를 치나요?” 자매님은 엄마에게 물어보셨다. “피아노 주변으로 와서 노래해요.”

자매님의 따뜻하고도 적극적인 환대에 내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자매님은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별로 싫어하시는 것 같지 않았다. 우리가 노래를 몇 곡 하고 나자 자매님은 코코아를 주시겠다고 했다.

“와서 도와주겠니?” 자매님이 내게 물어보셨다. 부엌에 들어가니, 성탄절을 위해 멋지게 장식된, 아름답게 차려진 식탁이 보였다. 정말 성탄절 느낌이 물씬 났다. 그리고 자리마다 정성스레 포장된 작은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건가요?” 하고 여쭙었다. 자매님이 혼자 사신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웃들을 위해서란다.” 자매님이 설명하셨다. “성탄절이 되면 나와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 그러니까 가까이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성탄절 아침을 함께 먹고 작은 선물을 나눈단다.”

자매님의 이야기는 열세 살이었던 내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고집스러웠던 내 마음이 존경심으로 가득 찼다. 이 방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자그맣고 연로하신 자매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우리를 이곳에 데려오신 엄마는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마침내 나는 행복해졌다.


다음 달 교회에서 만난 자매님은 우리에게 방문해 줘서 고마웠다고 또 말씀해 주셨다. 자매님은 그 해에 자신을 기억해 준 사람은 우리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몇 달 후에 자매님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

그해 성탄절을 떠올리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기쁨을 전해 주기 원하셨던 훌륭한 부모님과 연로하신 그 자매님께 감사함을 느낀다. ■

브룩 케이, 미국 유타 주







# 성탄절이 선교 사업을 하기 좋은 때인 여덟 가지 이유

성탄절에는 복음을 나누기에 더  
좋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살렛 라카발  
교회 잡지

**여**러분은 친구들을 사랑한다. 복음도 사랑한다. 그런데 이 둘을 함께 연결할 아이디어가 없다.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친구들과 복음을 나누고 싶어하지만 강요하는 것 같거나 이상해 보일까 봐 두려워한다. 복음을 나누는 일이 불안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절대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전에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교회에 대해 언급해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성탄절에는 평범하고 쉬우면서도 해 볼 만한 선교 사업의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맨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복음을 나눌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린다. 누구에게 말을 걸지 혹은 누구를 초대할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할 용기를 간구한다.

다음으로 할 일은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도 지금 당장 시작한다. 비밀을 한 가지 알려 주자면, 성탄절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 아주 쉽다는 것이다. 왜일까? 다음의 여덟 가지 이유 때문이다.

1. 누구나 훌륭한 파티를 좋아한다.

게다가 성탄절 때는 와드나 여러분의 가족이 파티를 열 공산도 크다. 파티에 친구를 초대해 즐거움을 함께한다! 어쩌면 그곳에서 구주에 관한 노래나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친구가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다.

2. 성탄절에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탄절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고 싶어 만드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 이 시기는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회원들이 어떻게 구주를 예배하는지 자유롭게 볼 수 있음을 알려 줄 좋은 기회이다.

여정의 매 순간을

**저**는 복음에 관심이 아주 많은 이웃 친구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상호 향상모임에도 초대했지만, 그 애는 늘 무슨 일 때문인지 올 수가 없었죠. 어느 날 밤 저는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당장 무릎을 꿇고 저는 성신이 저와 함께하셔서 저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했어요. 의아해하면서, 다시 한 번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또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 그들 역시 그들이 받은 많은 축복과, 구주의 권능 덕분에 받을 수도 있었을 모든 축복을 깨닫게 할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정의 매 순간을 저와 함께하실 것이며, 제게 인내심을 주시고 저를 더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어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얼마 후, 저는 제 친구와 상호 향상 모임에 가게 되었어요!

엘로라 시, 14세, 미국 애리조나 주







3. 초대장이나 복음 메시지를 건네면서 성탄절 간식을 곁들인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쿠키 한 점사와 함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을 나눈다면? 또는 브라우니랑 같이 성탄절에 관한 인용문을 주면 어떨까? 정말 좋은 생각이지 않은가!

4. 성탄절에는 보통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성탄절 전통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가족 및 성탄절 전통, 그리고 가족에 관한 여러분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꽤 쉬울 것이다.

5. 성탄절 전등 장식과 코코아는 누구나 좋아한다.

가정의 밤이나 상호 향상 모임으로 코코아를 마시거나 시내의 성탄절 장식을 보러 간다. 성탄절 활동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며, 친구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는지 보여 줄 훌륭한 방법이다.

###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올**마 전, 교회 친구가 이사를 가고 나자 저는 학교에 남은 유일한 물몬이 되었어요. 최근에 주일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지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알기 위해 저는 기도를 했고, 분명히 응답을 받았어요. 친구들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우리는 데이트에 관한 친구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16세가 되기까지는 데이트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친구도 저와 어느 정도 같은 표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정말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제 간증도 강화되었고요.

데이비드 에스, 13세, 미국 텍사스 주

6. 성탄절 물론 메시지는 정말 훌륭하며 공유하기도 쉽다.

“구주 나셨네—성탄절 동영상”을 공유하여 소셜 미디어에 성탄절의 영을 불러오자! 여러분의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 “The Reason Behind Christmas(크리스마스의 숨겨진 의미)”에서 천사역을 맡은 어린이가 무뚝뚝한 관리인을 돕거나, “코트—사랑의 이야기”에서 이타심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고 좋아할 만한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LDS.org나 물론 채널에서 이런 동영상을 비롯하여 친구들과 나눌 만한 다른 훌륭한 성탄절 메시지를 찾아본다.

7. 성탄절은 구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다.

이 시기가 되면 많은 기독교인이 구주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게 된다. Mormon.org에서는 다양한 일일 봉사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또한 구주의 가르침과 “세상을 비추는”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축하하기 위해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8. 성탄절에는 베풀고 봉사할 기회가 아주 다양하다!

봉사는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며, 성탄절 무렵에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기회도 많이 있다. 양로원을 방문하거나, 이웃에게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러 줄 수도 있고, 지역 쉼터에 물건들을 기부할 수도 있다. Mormon.org에서 12월 1일부터 25일 동안 봉사할 만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복음 덕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져다주시는 모든 희망에 관해 알고 있다. 그것은 놀라운 선물이며,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선물이다.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복음을 나눌 기회를 간구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알도록 영감을 주실 것이다. 성탄절은 나누고 베푸는 시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이다. ■




축하의 절기

“이 시기는 기쁨의 절기이며 축하의 절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음에 감사[를 표하는 행복한] 시기입니다!”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 2009년 12월 6일), [broadcasts.lds.org](http://broadcasts.lds.org).



A photograph of a weathered wooden door set into a rough stone wall. The door is made of vertical wooden planks and has a small, irregular hole in the center. The wall is made of light-colored, irregular stones. There are some green plants growing on the wall above the door.

우리는 각자  
**예수님이**  
머무실 자리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여관주인**  
입니 다 !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  
"너희 마음을 굳게 청하라", 1992년  
10월 연차 대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성탄절의 진정한 영을 느끼는 법

**성**탄절은 한 해 중 영광스러운 절기입니다. 또한 우리 대부분에게는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절기에 여러 가지 일에 얽매어서 엉뚱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느라 베들레헴의 기록하신 이의 탄생을 기리면서 연게 되는 단순한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희망하고 기원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은 더 많은 일을 해내려고 서두르거나 허둥지둥 한다고 찾아지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은 이 절기의 초점을 구주께 맞출 때 찾게 됩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가르치신 사랑과 이타심을 좇아 성탄절을 축하해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성탄절의 정신에 더 잘 어울립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려는 마음을 느낍니다. 덜 가진 이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사랑으로 손을 내밉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적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성탄절의 영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며, 그 시각으로 세상의 바쁜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물질보다 사람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탄절의 정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도 구주께서 베푸신 것처럼 베풀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내어

주는 것은 거룩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기억하여 베풍니다. 나중에는 결국 부서지거나 잊힐 선물과 함께, 영원한 가치를 지닌 선물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이해와 동정, 봉사와 우정, 친절과 온화함이라는 선물을 준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성탄 절기의 충만한 영광이 우리 주위에 감도는 이즈음, 우리도 동방박사들이 했던 것처럼 구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곳으로 이끌어 줄 밝고 특정한 별 하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구주께 드릴 선물로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영적 여행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

2013년 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에서 발췌함.





# “중요한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응답을 받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은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설명되어 왔다. 그 과정은 우선 마음속으로 자신의 질문에 대해 연구하며, 그런 다음 자신의 답이 옳은지 하나님께 여쭙어 보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의 답이 옳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에 평강을 말”씀 하실 것이다.(교리와 성약 6:23)

그런데 평강의 느낌이 분명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면 응답을 받은 것 같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여러분 생각인지 혹은 성신에게서 온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에 따르면, “계시는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열망과 합당성과 준비에 따라 조금씩 더해지는 방식으로” 온다.<sup>1</sup> 계시는 보통 갑자기 오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그것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오며(니파이후서 28:30), 종종 완전한 답을 받은 느낌이 들기도 전에 이미 어떤 방향으로든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기도 한다. 때로는 답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되면 응답하시리라는 신앙으로 우선 행동해야 한다.

응답이 자신에게서 온 것인지 성신에게서 온 것인지 염려가 된다면, “선을 행하도록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도록 이끌며 권유하는”(모로나이 7:13) 것이 바로 그분의 응답임을 기억한다.

주  
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계시의 영”, 2011년 4월 연차 대회.



**결정하고 영을 기다립니다**

어느 여름 저는 중요한 결정에 관해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에 대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매일 진심으로 기도하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분명한 응답을 받지 못했음에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즉시 제가 내린 결정으로 자신이 성장하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리라고 영이 간증하는 것을 느꼈어요. 때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선택 의지와 의로운 소망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살고 있다면, 그분의 영은 우리의 소망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소망들은 그분의 소망들과 일치할 테니까요.

**아만다 에이치, 16세, 미국 유타 주**

**도움을 간구하세요.**

저는 많은 것에 대해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는데 가장 두드러진 경우는 학업과 관련된 경우예요. 시험을 치기 전에, 저는 침착해지도록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해 낼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곤 했죠. 저는 여러 번 내용의 전체 단락을 기억해 냈는데, 주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로 기억해 낼 수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아요. 주님은 제 삶을 극진히 축복해 주셨어요. 기도의 힘과 그것을 통해 제가 느끼는 주님의 영향력은 제게 소중한답니다.

**에밀리 비, 18세, 호주 퀸즐랜드**



**인내하며 주의를 기울여요.**

저는 얼마 전에 봉사할 기회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떠올렸지만, 영의 속삭임이라고 여겨지는 대답을 받지는 못했어요. 실망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엘마서 5장 40절을 나누어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라는 말씀이었죠. 저는 제가 봉사에 대해 떠올렸던 생각들이 사실은 성신의 속삭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응답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저 인내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돼요.

리비 비, 16세, 미국 오리건 주



**영을 신뢰하세요.**

성신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방법을 인식하는 능력을 개발하면, 영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성신의 음성은 아주 부드러워서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위에서 오는 그 섬세한 속삭임과 느낌을 알아채지 못하겠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영이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속에 알게 되리라는 약속을 항상 받을 거예요.

리베이로 자매 선교사, 24세,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 남 선교부



**어떻게 되는지 해 보십시오!**

때로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완전한 답을 얻기 전에 신앙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지혜의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명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실천해 보십시오! 물론경이 참된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읽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있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프레스턴 오, 19세, 미국 유타 주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래스벤드 장로와 오스카슨 자매와 함께하는 실시간 대화 방송을 시청하던 중에 어떤 청소년이 응답을 받는 것에 관해 그와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오스카슨 자매님은 모로나이서 7장 16절을 인용하셨죠.



**영감은 한 번에 조금씩 옵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영감을 구할 때,

주님께서서는 먼저 암시를 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생각하고, 신앙을 행사하고, 노력하며, 때로는 고심하여,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복잡한 문제에 대해 완전한 응답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는 좀처럼 없습니다. 오히려 결과를 알 수 없는 가운데, 한 번에 조금씩 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리차드 지 스코트(1928~2015) 장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깨닫는 방법을 배움”, 1989년 10월 연차 대회.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로 말미암아 ...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그 성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 수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줘요. 영을 느껴 보세요. 그러면 답을 알게 될 거예요.

사라 에스, 17세, 브라질 산타 카트리나

**다음 질문**

**“저는 때로 구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느낌을 이기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8년 1월 15일까지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로 제출하거나(“작품 제출” 클릭)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우리들 공간



## 새 친구 사귀기

**우** 리 가족이 이사를 갈 거라고 부모님이 말했을 때 나는 새 친구를 사귄 생각에 정말 들떠 있었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자, 우리는 교회로 갔다. 나는 그곳에서 영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고, 일들이 잘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곧 새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나는 학교에서 유일한 몰몬이었다.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나는 내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다른 학생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처음 1주일 간 정도는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정말 어색한 느낌만 들 뿐이었다. 매 수업마다 다른

사람 옆에 앉고 매일 다른 자리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노력도 해 보았다. 하지만 발전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또래들에게 더 좋은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심했다. 개인 발전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부지런히 경전 공부에도 집중했다. 열심히 노력하는 동안, 나는 내가 하나님의 딸이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욱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나는 이런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다 문득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차렸다. 학교에서 내가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사람들이 나에게 이끌려 오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돋보이는지 말했다. 나는 그것이 내가 빛을 발하도록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우리 반 아이들에 비해 태도가 달랐고, 옷차림도 얌전했고, 고운 말을 썼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비록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내가 빛을 발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주님의 편에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 홀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

레베카 시,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 몰몬경을 나누어도 될까요?

**상**호 향상 모임에서 우리는 선교사가 되라는 과제를 받았는데, 동반자를 구하고, 비회원에게 간증을 전하고, 또 비회원 친구에게 몰몬경을 한 권 주라는 것이었다.

상호 향상 모임이 끝난 뒤, 나는 엄마께 조언을 구했다. 엄마는 신앙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면, 그분이 확실히 응답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다.

몰몬경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 데만 2주가 걸렸다. 처음에는 계속 거절만 당했다.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에 너무 지쳐서 막 포기할 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리 가족과 가까운 친구인 한 여성 분에 관한 꿈을 꾸었다. 꿈을 꾸면서, 나는 그분이 나와 내 동반자가 방문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잠에서 깨자, 나는 나를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렸다.

다음 상호 향상 모임에서, 나와 내 동반자는 몰몬경 앞 장에 간증을 쓰고 그분을 위해 과일 바구니를 만들었다. 우리는 그분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렸다. 혹시 그분이 거절할까 봐 겁이 나기는 했지만, 나는 조그마한 신앙이라도 가지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이윽고 그분이 행복한 얼굴로 나와 몰몬경을 받았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조그마한 신앙이라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

라퐁젤 엘, 미국령 사모아

## 피아노 레슨은 방학이 없나요?

**나**는 한 주 동안 피아노 연습을 쉬며 자체 방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아노 선생님도 우리 엄마도 이 방학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나는 한 주일 내내 연습을 하지 않았다. 쉬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목요일 밤, 엄마가 다음 날 아침에 피아노 레슨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바람에 즐거움은 끝이 나고 말았다. 나름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했다. 한 시간 일찍 일어났고 연습을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기울인 노력이 너무 적고 너무 늦었음을 깨달았다. 선택의 자유를 누리기는 했으나 그 결과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선생님은 늘 하는 연습 시간에 더해서 내가 빼먹은 연습 시간까지 모두 보충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선택 의지와 책임 그리고 의무에 관해 배웠던 그 가르침에 감사한다. 나는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과, 먼저 결과를 고려해 볼 시간을 가진다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

블레이크 에이치, 미국 유타 주



###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리아호나는 여러분의 경험과 통찰을 환영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있나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나요? 복음대로 살기 위해 용기를 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로 보내 주세요. ("기사나 피드백 제출" 클릭)



# 성탄절 전야에 오신 손님

일 년 중 성탄 전야만큼 멋진 밤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영망이 될 참이었어요!



홀리 케이 워딩턴  
실화에 근거함

“그리스도 탄생 노래하세: 이웃에 사랑 보이세.”(Children’s Songbook, 51)

클라라네 가족은 성탄절 전야가 되면 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가족의 그런 성탄절 전통이 좋았습니다. 먼저 저녁 식사로 구운 생선을 먹고, 후식으로는 성탄절 쿠키를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성탄절 용품을 파는 상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성경책을 펼쳐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크리스마스트리에 처음으로 불을 밝히고, 각자 하나씩 선물을 열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으로 꼽자면, 클라라는 일 년 중 이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태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성탄절 전야에는 특별한 손님을 모실 거란다. 레이너

아주머니 기억하니?”

클라라가 볼멘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지난주에 교회로 초대했던 이웃 말씀이죠?”

“그래. 아빠가 지금 그분을 모셔 오고 계시단다.”

클라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잘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성탄절 전야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레이너 아주머니는 아빠가 교회로 초대했지만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러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집으로 들어오신 아빠 곁에는 그 “특별한 손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레이너 아주머니는 지치고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아주머니께 인사는 했지만, 그 밖에 다른 말을 건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엄마 아빠가 아주머니와 이야기하시는 동안, 클라라는 잠자코



음식만 먹었습니다.

“춤 배워 본 적 있지?” 레이너 아주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클라라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접시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단다. 어떤 춤을 가장 좋아하니?”

클라라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접시 가장자리로 채소를 밀어냈습니다.

레이너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발레를 좋아한단다.” 대학에 다닐 때는 무용단에도 있었지. 우리는 1년 동안 유럽 곳곳을 여행했단다. 정말 대단했지.”

클라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또 무얼 좋아하시는데요?”

레이너 아주머니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말했습니다.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해. 그리고 수학을 좋아한단다.”

클라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수학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에요!”

클라라는 남은 저녁 식사 시간 내내 레이너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수학을 공부해서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남편을 만날 무렵에는 수학 교수가 되기 위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잘못된 선택을 한 탓에 지금 감옥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성탄절 용품을 파는 상점을 둘러보는 동안 클라라는 레이너 아주머니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이야기를 읽는 동안에는 아주머니도 볼 수 있게 경전을 펼쳐 드렸습니다.

드디어 선물을 열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포근한 보라색 잠옷을 받았습니다. 얼른 입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레이너 아주머니가 선물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씩 좋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엄마가 아주머니에게 선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열었고, 안에는 짙은 파란색 양말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이 그렇그렇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리저 없으셔도 되는데.”

클라라는 방으로 가서 새로운 잠옷을 입어 보았습니다. 계속 레이너 아주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성탄절에 받은 양말을 매우 감사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클라라가 보송보송한 양말에 발을 넣는데 아름다운 곡이 연주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층으로 달려가 보니 부모님이 레이너 아주머니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성탄절 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클라라도 함께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니 마음이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성탄절 전야에 손님이 오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 클라라는 생각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레이너 아주머니는 교회에 오셔서 클라라의 가족과 함께 앉아 성찬식에 참석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클라라는 아주머니와 함께 찬송가 책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성탄절 전야를 위한 전통을 새로 추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

글쓴이는 미국 아이다호 주에 산다.



저는 혼자 사시는 이웃을 찾아가 그림을 그려 드리는 것으로 사랑을 보여요!

질 케이, 10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





폴 비 파이퍼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용감하게 복음을 나누세요!



저희 가족은 전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났으며 복음을 나눌 기회도 많았습니다. 제 자녀들은 간증을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저희는 카자흐스탄의 시골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는 선교사들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이 복음에 대해 듣고 싶다고 할 때면 저희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제 딸 마른은 친구 알리오나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가르쳤습니다. 알리오나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침례를 받기로 했고, 나중에는 알리오나의 어머니도 알리오나의 여동생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알리오나는 어떤 의로운 형제를 만나 뉴욕 맨해튼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마른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마른은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로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저희가 미국 버지니아 주에 살던 시절, 제 아들 크리스는 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의 친구 한 명과 그 가족이 선교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는 선교사를 도와 그 가족을 가르쳤습니다. 크리스는 항상 토론을 앞두고 미리 준비했고 질문에 답하는 것도 도왔습니다. 그 가족도 침례받기로 했습니다. 크리스는 그 일로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는 자신이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한번은 집 수리 차 수리공이 저희 집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수리공이 일을 마치자 제 아내는 감사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내는 그에게 몰몬경을 한 권 건넸습니다.

그는 화를 냈습니다. 그는 저희 가족의 믿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용감하게도 자신의 간증을 그 남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중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간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 오늘날의 교회

아래 그림을 사용해서 교회사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몬슨 회장

성도들은 솔트레이크 계곡에 아름다운 도시를 세우고 40년에 걸쳐 솔트레이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후 교회는 아주 크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156개의 완공된 성전이 있으며, 몰몬경은 110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오늘날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교회가 계속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한 해 동안 교회사의 인물들을 다룬 이 연재 기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ahona.lds.org](http://iahona.lds.org)에서 더 많은 교회사의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화: 베스 엠 휘타커



# 빨간 딱지

이런! 대니얼이 또 딱지를 잃게 생겼어요!



다시 젠슨 모리스  
실화에 근거함

“선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때면 행복해요.”(Children’s Songbook, 197)

**마**테오는 칠판에 적힌 수학 문제를 서둘러 공책에 옮겨 적었어요. 수학은 마테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므로 정말 집중하고 싶었죠. 그렇지만 친구 대니얼이 말을 하는 바람에 샌토스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숫! 대니얼, 들을 수가 없잖아!” 마테오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대니얼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결국, 샌토스 선생님도 대니얼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대니얼, 또 수업을 방해하고 있구나.” 샌토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경고했을 텐데. 자, 내게 딱지 하나를 줘야겠다.”

대니얼은 느릿느릿 책상 안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빨간 딱지 한 장을 꺼내서 선생님께 드렸어요. 그리고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샌토스 선생님은 태도가 좋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들에게 딱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딱지에 자기 이름을 적어서 매일매일 단지 안에

집에 넣었죠. 그렇지만 잘못된 행동을 하면 딱지 하나를 다시 반납해야 했어요. 매주 금요일이 되면, 샌토스 선생님은 단지에 든 딱지 중 하나를 뽑으셨고, 뽑힌 사람은 반의 보물 서랍에서 상품 하나를 고를 수가 있었어요! 대니얼은 수업 중에 떠들다가 딱지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처럼 이름이 뽑히는 일이 없었어요. 마테오는 대니얼이 또 딱지를 잃게 되어 안타까웠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 마테오는 축구를 하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네 옆에서 혼자 서 있는 대니얼이 보였어요. 대니얼은 울음을 터트릴 듯한 얼굴이었어요. 마테오는 대니얼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돕고 싶었어요.

“같이 축구 할래?” 마테오가 물었어요.

대니얼은 대꾸가 없었어요. 마테오가 더 말을 건네려고 했지만, 대니얼은 고개를 돌려 버렸어요.

“그럼 나는 축구장에 있을게. 마음이 바뀌면 와.”

마테오는 다른 친구들과 축구를 하러 갔지만, 계속 대니얼이 생각났어요. 곧 8살이 되어 침례를 앞둔 마테오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대니얼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날, 반 친구들이 모둠별로 이야기를 읽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대니얼은 이야기를 읽지 않고 공중으로 책을 던지고 있지 뭐예요.

마테오가 대니얼을 말렸어요. “대니얼, 책 읽어야지, 그렇게 가지고 놀면 안 돼.”

하지만 대니얼은 또다시 책을 던졌어요. 샌토스 선생님도 천장에 닿을 듯 대니얼의 책이 올라가는 것을 보셨죠. 선생님은 대니얼에게 다가가시더니 딱지를 달라고 손을 내미셨어요. 대니얼은 책상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딱지를 찾는 대니얼의 얼굴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저런! 딱지가 없나 봐!” 마테오는 생각했어요. 딱지가 없으니, 이제 대니얼은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마테오는 급히 머리를 짜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샌토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니얼, 만일 더이상 딱지가 없다면—”

마테오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선생님께 여쭙었어요. “선생님, 제 딱지를 대신 드려도 될까요?”

반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어떤 학생도 선생님께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마테오는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궁금했어요.

선생님은 놀라신 것 같더니, 곧 미소를 지으셨어요. “넌 참 좋은 친구로구나. 그래, 네가 대신 딱지를 내도 괜찮아.” 마테오는 샌토스 선생님께 딱지 한 장을 드렸어요.

“마테오, 고마워.” 대니얼이 말했어요.

마테오가 말했어요. “아니야! 이제 같이 책을 읽어 볼까?”

대니얼이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집어 들었어요.

대니얼이 책을 읽기 시작하자, 마테오는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신 딱지를 낸다는 생각은 성신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했어요! 분명 예수님은 마테오가 대니얼을 돕기 바라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대니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마테오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 우리를 위해 짓값을 치르신 예수님

마테오는 대니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신 딱지를 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짓값을 대신 치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짓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회개하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회개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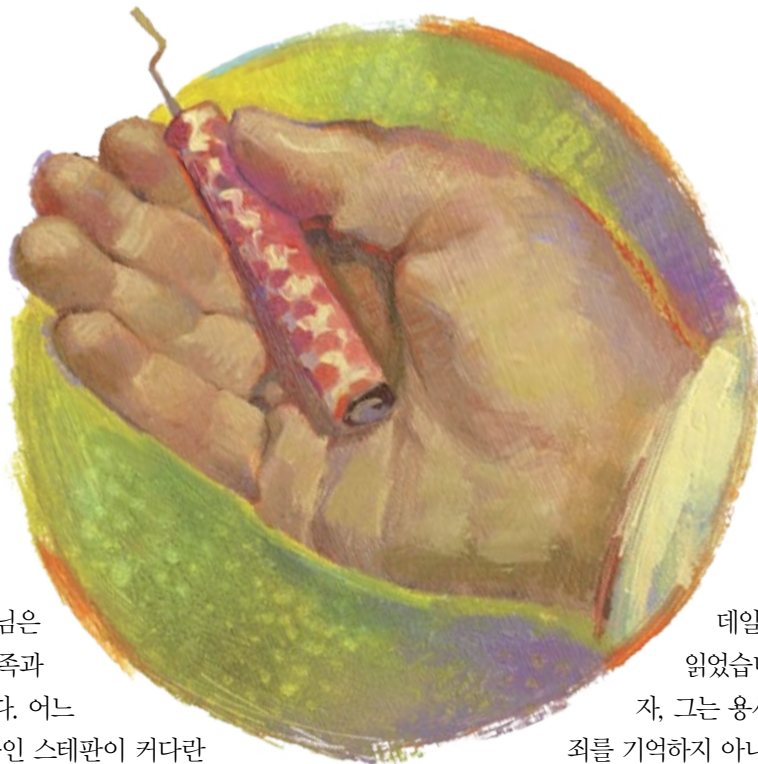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짓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로 할 때  
그분은 행복해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회개: 기쁨을 주는  
선택”, 리아호나 2016년  
11호, 121~124쪽에서  
발췌함.

# 폭죽



**데**일 지 렌랜드 장로님은 열두 살 무렵에 가족과 함께 스웨덴에 살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어린 데일의 친구인 스테판이 커다란 폭죽과 성냥 몇 개를 교회 건물로 가져왔습니다. 신이 난 데일은 그 폭죽을 가져다가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도화선에 붙은 불을 끄려다가 손가락을 대는 바람에 폭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데일과 스테판은 도화선이 무섭게 타들어 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폭죽이 터졌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데일과 스테판은 재빨리 폭죽의 잔해를 줍고 냄새가 가시도록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성찬식을 하려고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어찌나 냄새가 강한지 다들 모임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데일은 매우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 아버지가 실망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신 린드버그 지부 회장님은 교회 모임이 끝난 후 데일을 지부 회장실로 부르셨습니다. 데일은 폭죽으로 그런 일을 벌여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린드버그 회장님은 친절하신 분이셨습니다. 회장님은 경전을 펼치시더니 밑줄 쳐진 구절 몇 개를 읽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데일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었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2~43)

데일이 읽기를 마치자, 린드버그 회장님이 미소를 짓고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데일은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행복한 마음으로 지부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렌랜드 장로님은 잘못이 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자 마음이 행복해졌습니다. ■





**12월 12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4)

**12월 11일:**

“[내가] 나그네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고.”  
(마태복음 25:35)

**12월 15일:**

“근축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7)

**12월 16일:**

“[내가] 활벗었을  
때에 [너희가] 웃을  
입혔고.”  
(마태복음 25:36)

**12월 18일:**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제3니파이 18:15)

**12월 14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1)

**12월 13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12)

**12월 17일:**

“너희는 자주 함께  
모일지며.”  
(제3니파이 18:22)

**12월 19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12)

**12월 20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누가복음 12:31)

**12월 21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  
(마태복음 6:14)

**12월 25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12월 23일:**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보았고.”  
(마태복음 25:36)

**12월 22일:**  
“이는 너희가 본 바 나의  
행하는 것, 곧 그것을  
너희가 행하여야 할  
것임이니라.”  
(제3니파이 7:21)

**12월 24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마태복음 21:13)

매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뒤  
해당하는 별을 색칠해  
보세요!

내년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별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빛나는 모범이 되었던 경험과 함께 별 하나를  
보내 주세요. 사진이 있다면 함께 보내 주세요.  
liahona.lds.org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제타 이미지

# 예수님의 가르침

12월에도 Mormon.org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 많이 찾아보세요!  
Liahona.lds.org 또는 북음 자료실 앱의 디지털 버전 기사에는 이 기사로 처음  
열흘간 할 수 있는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 그분을 위한 자리

작사: 래리 힐러  
작곡: 마이클 에프 무디

경쾌하게 ♩ = 76-84

1. 오 래 전 에 아 기 예 수 지 상 에 왔 을  
(2. 베) 들 레 령 여 관 처 럼 때 른 우 리 삶  
(3. 베) 들 레 령 여 관 처 럼 열 어 줄 순 없 어

*mp*

3 때 여 관 은 이 미 가 득 차 구  
도 도 의 미 리 없 는 바 뿐 일 로 그  
도 우 우 주 주 위 위 모 든 이 에 게 구

Gm A Dm Gm F  
주 게 서 탄 생 하 실 방 하 나  
분 게 위 한 자 리 를 내 주 지  
주 의 파 뜻 한 사 랑 나 놀 수

Gm C7 1. 2. F 3. Dm  
없 었 네 2. 베  
못 있 하 다 네 3. 베  
있 하 다 네

B $\flat$  F Dm Gm C7 B $\flat$  F  
나 늘 수 있 다 네

© 2017 래리 힐러 및 마이클 에프 무디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음.  
본 문구는 모든 사본에 포함되어야 함.

# 우리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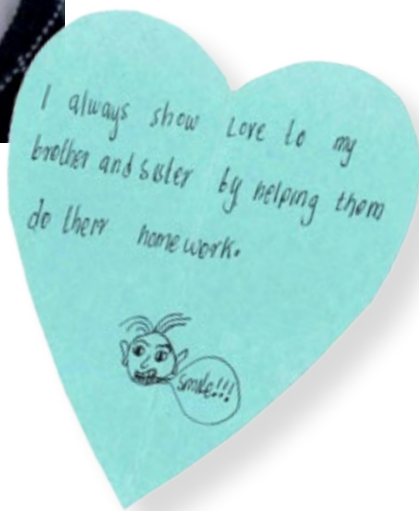
우리는 우리 삶과 가족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성전 모형을 만들었어요. 브라질 상파울루 와드의 초등학교 어린이들



저는 항상 제 동생들 숙제를 도와주면서 그들에 대한 제 사랑을 표현합니다. 미소를 지으세요!  
벤자민 에스, 11세, 케냐



우리는 바닷가로 휴가를 가서 모래 위에 정의반 방패 모양을 만들었어요.  
소피아, 마티아스, 토마스 오, 아르헨티나



## 전능한 신

많은 사람들이 “전능한 신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해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분이 어린 아이들의 눈 속에 있다는 것을, 속삭이는 산들바람 속에도, 용감한 자들의 마음 속에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미소 속에 그분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분을 단지 “하나님” 이나 “전능한 신”이라고만 부르진 않아요. 그보다는 ...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드리아나 지, 9세, 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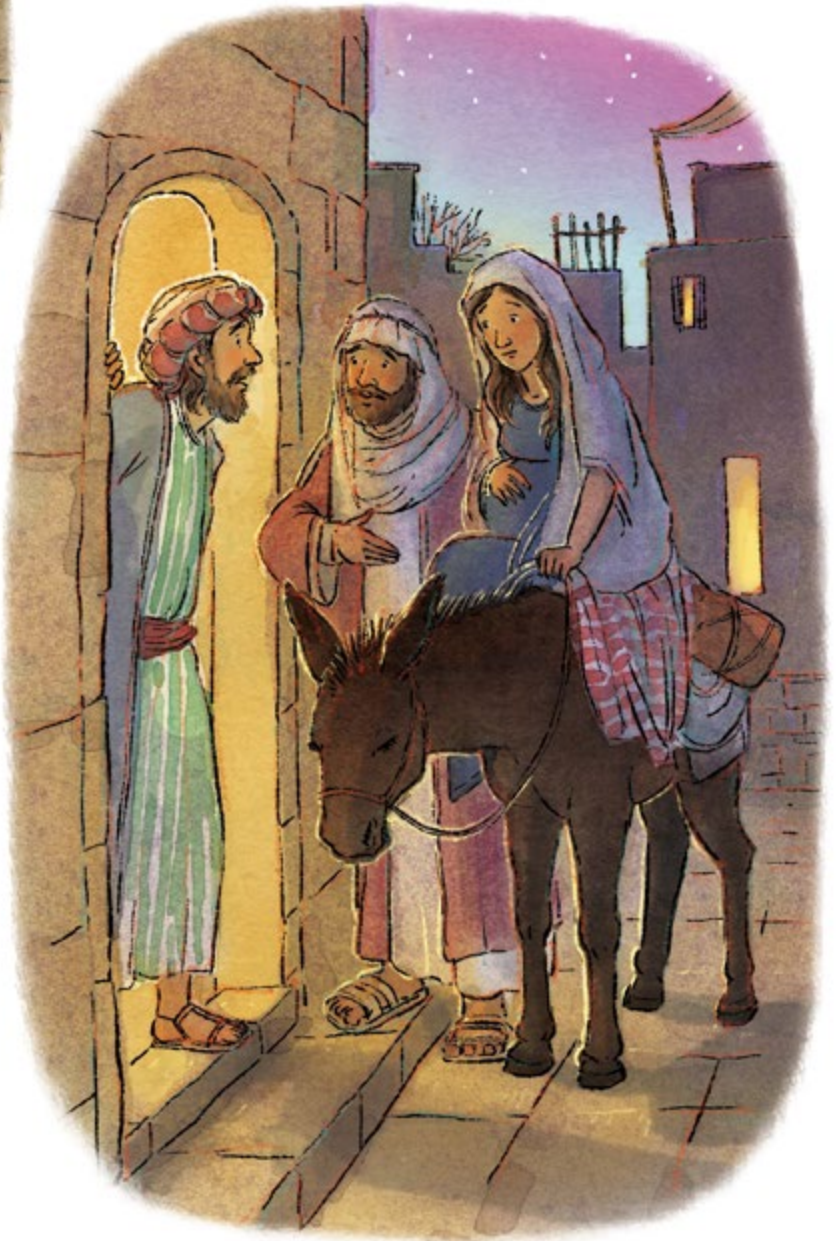
#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김 웹 리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여인이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여행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시기가 임박했죠. 하지만 베들레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나머지 마리아와 요셉은 밤을 보낼 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관 주인이 그들을 마구간에서 지내게 해 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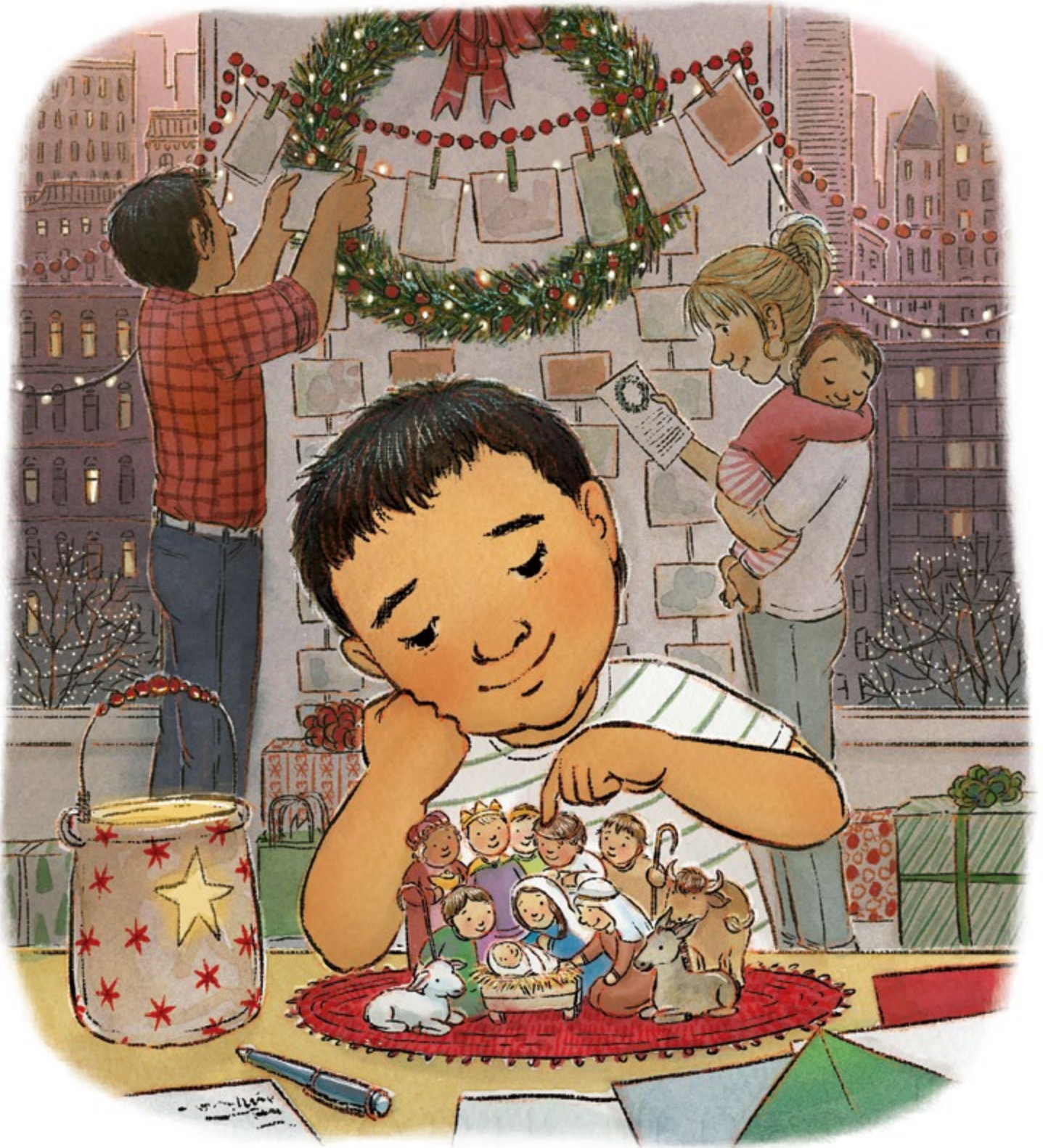


곧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새로운 밝은 별이 나타나 세상의 빛이  
지상에 내려왔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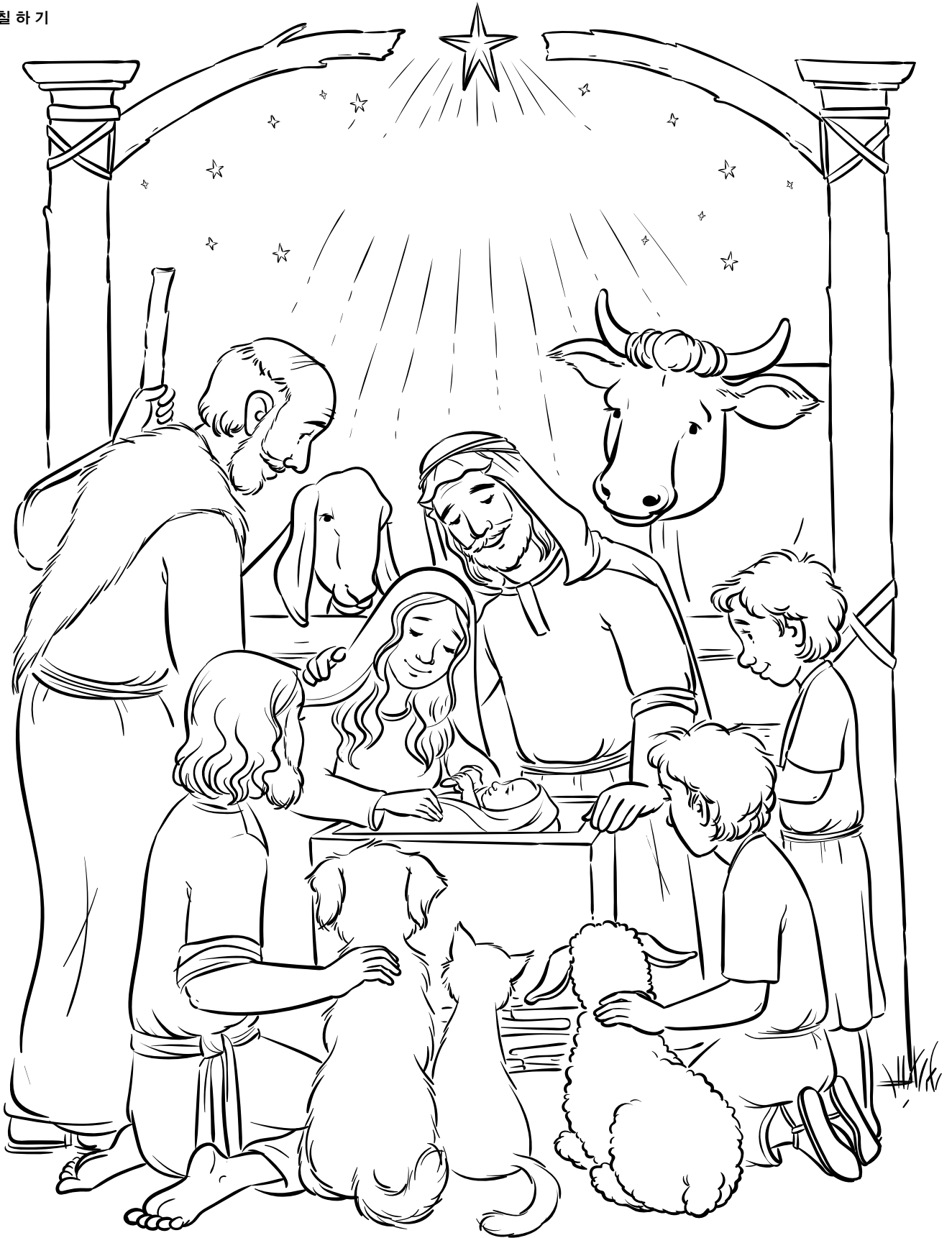
천사가 몇몇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알렸습니다. 그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려고  
서둘러 떠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일년 내내 그분의 빛을 따를 거랍니다! ■

누가복음 1:26~38; 2:1~20 참조



“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니]”(누가복음 2:16)





조셉 스미스  
(1805~1844)  
제1대 교회 회장

## 용감하게 그리스도의 대업을 행하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대의와 미덕, 순결, 올바르고 한결같은 행동,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덕하고 올바르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온 힘을 다해 설득하여 그들이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의로운 사람이 되어 죄를 사함 받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된 예수님의 자녀들을 돌보이게 하는 모든 훌륭한 자질을 익히며 신앙을 강화함으로써 기도가 필요한 시기에 기도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왕국에서 받을 보상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환란 중에서도 충실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부디 세계 의로운 삶을 허락하시어 이 같은 보상을 받게



하시옵소서! ...

저는 인간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으로서, 덕과 거룩함과 주님의 계명을 위해 신실하게 노력할 것을 여러분 모두께 일깨워 드립니다. 선하고 현명하고 공의로우며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항상 선한 행실로 가득하며 자애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순결하며, 악을 선으로 대하십시오. ...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겸손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빛의 자녀들과 낮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기 위해 자주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을 담대히 권고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이름으로 모든 악을 극복할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포도원에서 보인 근면과 인내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통해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결의에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해의 영광의 왕관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된 안식을 취하기 위해 끝까지 그리스도의 대업을 이어가며 충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는 거룩하고 순종은 고귀하며 용서는 자비롭고 승영은 신성합니다. 끝까지 충실한 이들은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 모든 것을 견뎌 낼 것입니다.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11), 352~356쪽에서 발췌, 번역 수정.



시므온과 예수,  
안드레이 쉬스킨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2:29~32; 또한 25~35절 참조.



# 그 밖에도 이번 호에는

## 청년 성인

### 구주께 드리는 나의 선물

선교사로서 나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때 나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구주께 집중해야 함을 깨달았다.



48쪽

## 청소년

54쪽



### 성탄절이 선교 사업을 하기 좋은 때인 여덟 가지 이유

친구에게 복음을 나누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던 적이 있었는가? 왜 성탄절이 선교사가 되기에 가장 쉬운 시기인지 그 이유를 찾아보자!

## 어린이

### 예수님의 가르침

여기 나온 별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이번 달에 있을 성탄절을 준비해 보세요.



72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